

소그룹 리더 교육교재

# 소그룹 리더 바로 세우기

재림 성도의  
영적 성장  
과 정

· 3단계 ·  
일꾼 되기



한국연합회  
선교전략연구소

## 재림성도의 영적 성장 과정

Making Adventist Continuum



재림 성도의 영적 성장 과정

*Spiritual Growing In Christ As The Adventist*

소그룹 리더 교육교재



# 소그룹 리더 바로 세우기



한국연합회 선교전략연구소

오늘날 반드시 실천해야 할 교회의 중요한 기능과 사명은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고,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교회가 세상을 교화시키는 사업을 위해서 신자들을 훈련시키고 적합하게 하기를 원하신다”(6T, 431).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인 일꾼들을 양성하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MH, 135).

이 말씀과 같이, 교인들을 실제로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일이 각 교회마다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는 한 교회의 부흥과 사명의 성취는 요원(遙遠)한 일입니다. 그동안 재림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일을 등한시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강조는 많이 하였지만 지역 교회 차원에서 실천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니다. 교회 성장의 가장 기본 요소인 평신도 훈련을 이제라도 새롭게 시작해야 교회 미래에 희망이 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교회 성장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새 힘 2015’ 사업의 일환으로, 체계적인 재림성도 양육과정 시스템과 교재들이 제작되었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이 방대한 작업을 완성시킨 선교전략연구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3단계의 과정을 13권의 교재로 공부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양육 교재가 각 교회에서 적절하게 사용되어 새로운 부흥과 성장의 역사가 한국의 모든 재림교회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5년 9월

한국연합회장 / 목회부장 김대성

## 교재 구성 및 사용법

본 교재는 지역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소그룹 리더 훈련을 시킬 수 있도록 고안된 <코치용 교재>이다. 본 과정은 12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주 모일 경우 3개월 코스로서 마지막 13주차에는 수료식을 갖도록 편성하였다. 각 과별 소요 시간은 1시간(60분) 정도이며, 실습을 할 경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소그룹 리더를 훈련시키는 본 과정을 지도하는 사람을 '코치'라 부르며, 코치의 역할은 담임목사나 훈련반은 평신도 전문가가 맡게 된다.

- 첫 모임이 중요하므로 빠짐없이 참석할 수 있도록 가장 적절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개개인에게 알린다.
- 코치가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주입식 교수법이 아닌 자연스럽게 토의하면서 진행하도록 설계되었다.
- 교재의 왼쪽 칼럼은 리더용 교재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고, 오른쪽 칼럼은 코치가 활용할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맨 먼저 <오프닝 스토리>를 읽고 오늘의 주제를 소개한다.(단, 제1과는 <아이스브레이커>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 <아이스브레이커>는 리더들 간에 친밀감을 높이는 시간이므로 생략하지 말고 실시하되 15분을 넘지 않도록 한다.
- <바이블 스터디>는 성경 연구를 통해 해당 주제를 다루는 부분으로서 도입, 토의, 적용 등 세 가지 질문을 활용하면 된다.
- <소그룹 연구>는 각 과의 핵심부분으로서 소그룹 운영의 원리를 배우는 부분이다. 코치는 이 부분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 <적용을 위한 그룹 활동>은 이번 과에서 배운 내용을 우리 교회 형편에 맞게 적용할 방법을 고민하면서 토의하는 부분이다.

## 리더 선발

소그룹 사역의 성패는 리더 훈련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공적인 소그룹 사역을 원한다면, 교회가 본격적으로 그 일을 시작하기 최소 6개월 전에 본 과정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리더 후보생 선발은 연령이나 성별, 사회적 신분이나 교회 내 직분 등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리더로서의 은사와 소양을 가지고 있는지, 구성원들을 진심으로 돌보고 사랑하는 마음을 지녔는지, 평소에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 뿐 아니라 자신의 믿는 바를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시간을 내어 헌신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된다.

처음부터 이 모든 조건을 골고루 갖춘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훈련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바른 사람’을 발굴하여 세우는 것이, 리더로서의 은사와 소양이 없는 사람을 세워 놓고 많은 훈련을 시키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것을 시간이 지날수록 절실하게 깨닫게 될 것이다.

처음 소그룹 사역을 시작하는 교회는 담임목사를 중심으로 안식일학교와 선교회 책임자 등이 함께 모여 의견을 교환하면서 리더 후보 선발에 필요한 균형감각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소그룹이 확장되어 분반을 할 경우에는 소그룹 리더가 견습 리더를 선발하는 것이 상례이다. 리더 자신이 직접 견습 리더를 선발하는 경우라도 담임목사나 교회 지도자들의 조언을 듣는 것이 안전하다.

## 성공적인 소그룹 사역을 위한 조언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소그룹 열풍은 한국 재림교회에 반성과 열망을 동시에 갖게 한다. 엘렌 G. 화잇 여사는 이미 110여 년 전에 소그룹 활동에 관한 영감의 글을 남겼다. “실수가 없으신 분이 그리스도인의 활동의 기초로서 작은 단체들(small companies)을 형성하라고 제시해 주셨다. 형성하여 교인들을 위해서뿐 아니라 불신자들을 위해 일하게 해야 한다. 한 장소에 진리를 아는 사람이 두세 사람만 있을지라도 그들은 스스로 일꾼의 단체를 형성해야 한다”(교회증언 7권, 21). 이 말씀의 역동성을 입증하기라도 하듯 많은 개신교회들이 소그룹 사역을 통해 큰

부흥을 맛보았다. 그러는 동안 이미 오래 전에 이 빛을 받은 재림교회는 이 권면을 무시한 채 즐기고 있지는 않았는지 반성하게 된다.

소그룹 사역에 성공하는 교회는 분명한 성공의 이유를 가지고 있고, 실패하는 교회는 실패 원인이 있을 것이다. 만일 교회가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공을 향해 성큼 다가가기에 원한다면 주도면밀한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은 소그룹 사역에 실패한 교회들의 몇 가지 공통점들을 지적한 것이다.

1. 소그룹을 교회의 프로그램 중 하나로 인식하는 교회는 소그룹 사역에 성공하지 못한다. '우리 교회도 소그룹을 한다'는 정도로는 이 사역에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 소그룹 자체가 교회의 모든 사역의 기본 틀이 되어야 한다. 단지 '소그룹이 있는 교회(church with small groups)'와 소그룹을 중심으로 모든 사역이 펼쳐지는 '소그룹의 교회(church of small groups)'는 전혀 다른 것이다. 비록 교인 수가 적더라도 작은 단체들을 형성하여 신자들과 불신자들을 위해 일하라(교회증언 7권, 21 참조)는 기별이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로 주어졌으므로 우리는 전혀 소그룹 사역에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2. 다른 개신교의 소그룹 모델을 그대로 들여올 경우, 재림교회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소그룹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다. 한국 재림교회는 이미 부흥을 기다리고 있는 소그룹들, 즉 '안교 교과반'과 '안교활동반'과 '선교소그룹'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소그룹들은 대부분 본연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비가 시급한 형편이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기존의 소그룹들을 재정비하여 제대로 기능하도록 하는 대신에 다른 교단에서 성공하였다는 소그룹 모델을 그대로 들여오으로써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셀, 순, 다락방, 목장 등이 새로운 소그룹 사역으로 추가될 경우에 재림교회의 기존의 소그룹들과의 충돌은 불가피하게 된다.

3. 일반 개신교회들이 일반적으로 따르는 '예배'와 '말씀연구' 중심의 소그룹 모델은 재림교회의 소그룹 사역에 맞지 않는 면이 있다. 물론 '예배'와 '말씀연구'를 중심

으로 하는 소그룹이 필요한 초신자들도 있겠지만 많은 재림교인들에게 그것은 충분한 메리트를 주지 못한다. 그 이유는, 재림교인들이 다른 개신교인들에 비해 말씀을 접하는 기회가 많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 주일학교와 달리 안식일학교는 '장년들을 위한 말씀연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조석예배의 기도력이나 안식일학교 교과는 매일 단위로 말씀을 접하게 한다. 또 화요 기도회와 안식일 환영예배, 안식일예배 등 정규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을 연구하고, 그 외에 사경회, 전도회, 주말부흥회 등 특별 집회들을 통해서도 꾸준히 말씀연구의 기회를 갖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말씀연구에 대한 갈급함이 적은 편이다. 따라서 일요일 예배 설교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 일반 개신교인들에게는 '예배와 '말씀연구' 중심의 소그룹 활동이 매력을 줄지 모르지만 재림교인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재림교인들은 주중 모임 시에 실제적인 봉사 활동을 통한 섬김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편이 낫다. 교회가 속한 지역의 절실한 필요를 파악하고 그 필요를 채워 주는 실제적인 사역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4. 소그룹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인 '선교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우리끼리 즐기는 '친교공동체'로 만족하는 소그룹은 실패한다. 물론 '말씀연구'와 '친교'도 필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실제적인 '사역'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면 소그룹 사역은 미완성으로 남게 된다. 고여 있는 물은 썩기 마련이다. 선교 마인드가 결여되어 우리끼리 친하게 지내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머지않아 '친교'마저 깨어지고 소그룹은 와해되고 만다.
5. 교회가 소그룹을 통해 신자들의 열정과 은사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지 못하면 소그룹 사역은 활력을 잃는다. 교회는 '은사공동체'로서 각 지체들이 자신의 은사를 활용하는 현상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신자들은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설령 자신의 은사를 알고 있더라도 사역팀 안에서 그것을 활용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의 기쁨은 점차 소멸될 수밖에 없다. 신자들이 자신의 천부적인 재능과 후천적인 기술과 영적인 은사를 활용하여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같은 분야에 열정을 느끼는 사람들이 하나의 사역팀을 이루고, 그 사역팀 안에서 각각 다른 은사를 조화롭게 활용함으로 역동적이고 효율적인 사역이 펼쳐지는데, 과거에 전통적으로 해오던 지역별, 취미별 혹은 연령별 편성 방법은 소그룹이 친교 수준에 머물게 하고 열매 맺는 사역에까지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

6. 소그룹이 처음부터 확장의 의지를 가지고 번식의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하면 시간이 흐르면서 저절로 도태되는 경향이 있다. 한국 재림교회 내의 많은 소그룹들이 번식의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원인은 확장에 대한 의지와 열망이 부족하고, 번식을 위한 전략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야 구도자들을 안전하게 정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받지 못한 탓도 있다. 본 교재의 후반부에 나오는 구도자 흡수 전략을 잘 응용한다면 반드시 분반의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7. 끝으로, 소그룹 사역이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리더 양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소그룹 사역은 거의 전적으로 리더의 손에 달려 있다. 리더 훈련 없이 소그룹 사역을 시작하는 것은 아주 무모한 도전이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일을 시작하는 것과 같다. 소그룹 리더 훈련은 소그룹 사역의 필수 조건인데도, 이것을 소홀히 함으로 그동안 실패의 쓴잔을 많이 마셔야만 했던 것이다.

본 교재는 지금까지 제시한 크고 작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재림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소그룹 사역의 염원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집필되었다. 다시 강조하지만, **소그룹 사역의 성공 여부는 리더 훈련에 달려 있다.** 아무쪼록 본 과정을 통하여 소그룹 사역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이다.

Lesson  
01

교회와 사역...10

Lesson  
02

사역과 소그룹...19

Lesson  
03

소그룹과 리더...27

Lesson  
04

소그룹 형성...35

Lesson  
05

재림교회와 소그룹...44

Lesson  
06

교사로서의 리더...52

Lesson  
07

목양자로서의 리더...60

Lesson  
08

사역자로서의 리더...68

Lesson  
09

소그룹 운영의 실제 1 ...75

Lesson  
10

소그룹 운영의 실제 2 ...84

Lesson  
11

소그룹과 양육 시스템...92

Lesson  
12

사역 확장...101

부록1

당신의 은사를 발견하라...109

부록2

소그룹 활동 보고서...135

## 오프닝 스토리

서울 외곽의 한 주택가에 작은 교회가 있었다. 예배당도 없이 가정집에서 모이는 초라한 교회였으나 성도들은 사랑의 띠로 묶여 있었다. 모이면 뜨겁게 말씀을 연구하고, 흠어지면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했다.

재개발지역으로 묶인 교회 주변의 이웃들은 대부분 가난했기 때문에 교회는 그들을 돕기 위해 교회 예산의 많은 부분을 사용해야 했다. 쌀을 사서 나눠 주거나 연탄을 배달해 주는 등 이웃의 현실적인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하였다. 교회의 이런 활동에 대해 처음에는 경계의 눈초리로 지켜보던 사람들도 수 년 동안 한결같이 봉사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칭찬을 하기 시작했다. 봉사의 손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는 이들도 생겨났다.

교인 수가 조금씩 늘어나자 예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집의 처마를 달아내기도 했다. 그러던 중 본격적인 재개발 공사가 시작되자 이들의 예배 공간도 헐릴 운명에 놓이게 되었다.

이 즈음에 구청에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해야 했는데, 그 까닭은 재개발지역의 종교 부지를 각 종교단체들마다 요청했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주민들은 거의 만장일치로 이 작은 교회에 손을 들어주었다. 주민들의 눈에는 이 작은 교회가 그들에게 꼭 필요한 교회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태릉 재림교회의 실화이다.



- 〈오프닝 스토리〉는 코치 자신이나 참석자(리더)들 중 한 명이 읽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아이스브레이커〉로 넘어가면 된다. 하지만 제1과의 경우는 〈아이스브레이커〉를 먼저 하고 나서 〈오프닝 스토리〉를 읽고 〈바이블 스터디〉로 넘어가는 것이 자연스럽다.
- 주민들의 열렬한 지지로 태릉교회가 종교 부지를 확보할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리더들에게 물어볼 수 있다.  
(예상되는 답: 주민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 주었다. 교회 예산의 대부분을 이웃을 위해 사용했다.)
- 우리 교회는 주변의 이웃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남아 있을지 생각해 보자.

## 아이스브레이커

실제 소그룹을 이끌다 보면 가장 어색한 시간이 첫 모임을 시작할 때이다. 이때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바꾸어 주는 소위 ‘아이스브레이커’ 시간이 필요하다. 오늘이 그 첫모임이기 때문에 자기 소개의 시간을 가지고자 한다.

아래의 빈칸에 자신을 소개하는 3개의 문장을 적어 보라. 먼저 자신의 이름을 적은 다음, 자신의 나이, 가족관계, 고향, 신앙배경, 최근 관심사 등 자신이 소개하고 싶은 내용 3가지를 적되, 그중 하나는 일부러 사실과 다르게 적는다. 자기를 소개할 때 다른 멤버들은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맞힌다.

## 이름 :



- 인원이 많으면 4~6명 단위로 그룹을 만들어라.
- 소개 시간은 1인당 2분 이내로 한다(제한 시간 : 10분).
- 각자 펜을 꺼내어 빈 칸에 이름을 쓰고 자신을 소개하는 문장을 쓰게 하되, 두 가지는 사실대로 적고, 한 가지는 사실과 다르게 적는다. 한 사람씩 돌아가며 소개할 때 나머지 구성원들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맞힌다.
- <아이스브레이커>의 목적은 서로 친밀감을 높이는 것이므로 코치는 최대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한다.

## 바이블 스터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나...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을 보고 공궤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 25:31~40)



최근에 누군가를 은밀히 도와주고 기쁨을 맛보았던 경험이 있습니까?

---

---

우리는 선행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을 얻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영생에 들어갈 의인들의 선한 행실이 강조되고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

---



##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 누구일까요?



- 제한시간 : 15분
- 한 사람이 본문을 읽게 하고 다 읽은 후에 바로 1번 도입 질문을 던진다. 질문을 던질 때는 책을 읽듯이 말하지 말고 의미가 정확히 전달되도록 자신의 말로 소화하여 질문하라.
- 질문을 던졌을 때 답이 나오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코치도 답을 준비하되, 가능한 한 리더들의 답변을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것이 좋다.
- 너무 지루하지 않도록 한 질문 당 5분을 초과하지 않게 하고, 충분히 토론했다고 판단되면 감각적으로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라.
- 토의가 논쟁으로 비화할 경우에 코치는 중립을 지키고 결론은 각자가 맺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

## 소그룹 연구

### 1. 교회란 무엇인가?

예수께서 지상에 세우기 원하셨던 교회는 단지 건물이 아니라 구원 받은 성도의 역동적인 공동체였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품성을 재현하고 사역을 계승할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원하셨다.

- ▶ 사도행적, 9 “교회는 [ ]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 ▶ 사도행적, 12 “하나님의 교회는 다양한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은 여러 성도들이 모인 공정이다. 그들은 저희가 도와주고 축복하는 사람들의 [ ]에서 저희의 [ ]을 찾을 것이다.”



## 2. 교회와 사역

교회는 여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중에는 성도가 함께 모여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 공동체로서의 기능과,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는 친교 공동체, 즉 ‘코이노니아’(koinonia)로서의 기능도 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는 교회가 존재하는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를 밝히고 있다. 그것은 성도가 자신의 은사를 활용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다(엡 4:12).

사역이란 말은 영어로 ‘미니스트리’(ministry), 헬라어로는 ‘섬기다’, ‘봉사하다’의 의미를 지닌 ‘디아코니아’(diakonia)이다.



- 제한 시간 : 20분
-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사도 행적, 9)
- “하나님의 교회는 다양한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은 여러 성도들이 모인 궁정이다. 그들은 저희가 도와주고 축복하는 사람들의 행복에서 저희의 행복을 찾을 것이다.”(사도 행적, 12)
- 교회의 기능은 예배, 친교, 사역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 우리 교회가 가장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 사역(ministry)은 교회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목적이다.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은 교회의 핵심적인 기능이면서도 흔히 간과되고 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단지 예배 공동체나 친교 공동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상이다. 우리는 ‘디아코니아’로 표현된 ‘섬김의 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

## 3.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방법

예수님의 지상 생애는 섬김의 생애였다. 그분께서는 “나를 따라 오라”고 말씀

하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그분의 사랑과 권능을 친히 보여 주시고, 그분을 자원하여 따라 가도록 이끄셨다. 우리도 그분의 사역 패턴을 따를 필요가 있다.

▶ **치료봉사, 143**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만 사람들을 접촉할 때 참 성공을 거둘 것이다. 구주께서는 사람들의 유익을 소원하는 분으로서 그들과 섞이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에 대한 당신의 동정심을 보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하시고, 그들의 신임을 얻으셨다. 그 후에 그분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 4. 사역의 내용과 대상

사역의 내용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이다. 사람들의 필요에는 현실적 필요(felt-needs)와 영적인 필요(spiritual needs) 두 가지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사역의 대상은 다름 아닌 필요를 느끼면서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이웃이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막 12:31)고 명령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섬김을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의 참 제자가 아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는 이들은 많다. 우리는 더 이상 그들에게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 교회란 예수님의 품성을 본받고 그분의 사역을 계승한 공동체임을 강조한다.
-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만 사람들을 접촉할 때 참 성공을 거둘 것이다. 구주께서는 사람들의 유익을 소원하는 분으로서 그들과 섞이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에 대한 당신의 동정심을 보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봉사 하시고, 그들의 신임을 얻으셨다. 그 후에 그분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치료봉사, 143)
- 미국의 심리학자인 에이브러햄 H. 매슬로우는 인간의 필요(욕구)를 5단계로 나누었는데, 그것은 1) 생리 욕구, 2) 안전 욕구, 3) 애정·소속 욕구, 4) 존경 욕구, 5) 자아실현 욕구이다. 그러나 자아실현을 이룬 사람도 다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적 요구’를 가지고 있다. 교회는 이웃들의 영적 욕구를 채워 주기 위해 먼저 그들의 신임을 얻어야 하는데, 신임을 얻는 방법은 그들의 현실적 욕구를 채워 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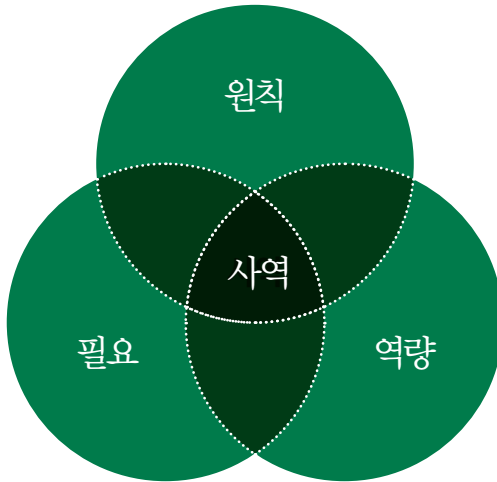
## 적용을 위한 그룹활동

1. 만약에 우리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뽕” 하고 사라진다면 교회 주변의 이웃들은 얼마나 아쉬워할까요?

-----

-----

2. 사역(ministry)은 아래의 도식과 같이 세 가지 요소가 만나는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text)과 지역 사회의 필요(context)와 교회의 역량(resource)이 함께 만나는 지점에서 사역이 형성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 사회의 절실한 필요는 무엇이 있을까요?

세 가지만 적어 봅시다.

①

②

③

3. 우리 교회는 예배와 친교 중심의 내부 지향적인 교회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섬김을 실천하는 외부지향적인 교회에 가깝습니까? 만일 내부지향적인 교회에 가깝다면 어떻게 외부지향적인 교회로 탈바꿈할 수 있을까요?

---

---



- 이 그룹 활동을 통해 이번 과를 마무리한다.
- 제한 시간 : 10분
- 1번 도입 질문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끌지 말고, 2번 토의 질문을 깊이 다루고, 3번 적용 질문에서 진지한 토론을 한다.
- 도식 설명 : 만일 교회가 시작하려고 하는 어떤 사역이 사람들의 '필요'에 부응하고, 교회가 그만큼 '역량'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말씀의 '원칙'과 맞지 않으면 사역이 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사교댄스 클럽'을 교회에서 열어 달라는 요청이 있다면 그것이 원칙과 부합하는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 한편 '원칙'에 맞고 사람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사역이지만 교회가 이를 채워 줄 만한 '역량'이 없다면 기도해야 한다. 또한 '원칙'에 맞고 교회가 '역량'을 구비하고 있으나 사람들이 아직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면 꾸준히 홍보하면서 그들이 필요를 느낄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 사역과 소그룹

## 오프닝 스토리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가운데 우리의 감탄을 자아내는 놀라운 지혜를 가진 생명체들이 많다. 그 가운데 기러기의 이동은 소그룹 사역에 임하려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

파란 가을 하늘에 V(브이) 자를 그리며 무리지어 날아가는 기러기 떼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경외감을 느끼게 한다. 기러기들이 이동할 때 선두에 선 기러기는 방향과 속도와 고도를 조절하면서 무리를 이끌어 가는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른 기러기가 선두 자리를 교대해 줌으로 힘든 일을 분담한다. 조류학자들에 따르면, 기러기들이 V 자 대형을 이루어 날아갈 때 혼자 날 때보다 71%나 더 오래 날 수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앞선 기러기의 날갯짓이 뒤따르는 동료에게 부력을 제공하고 공기 저항을 줄여 주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끼룩 끼룩” 소리를 내는 것은 각자의 위치를 알리는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으로서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며 격려하는 행동인 것이다. 마치 군인들이 행군할 때 군가를 부르면 힘이 솟는 것처럼 기러기들도 이렇게 함으로써 떠나면 여행길에 지치지 않고 모두에게 힘이 되도록 공동체 의식을 발휘하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만일 기러기 한 마리가 총상을 입거나 아파서 대형에서 처지면, 다른 두 마리가 함께 대형에서 빠져 나와 아픈 기러기를 도와주고 끝까지 보살핀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픈 기러기가 다시 정상적으로 날 수 있게 되거나 그 동료가 죽은 후에야 비로소 움직인다고 한다.



- 〈오프닝 스토리〉를 코치나 리더 중 한 명이 읽는다. 다 읽은 다음 기러기 이야기에서 느낀 점이나 새롭게 얻은 교훈을 우리 소그룹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물어보라.

## 아이스브레이커

흔히 하는 말로, 대한민국에서 결속력이 가장 강한 3대 단체 하면 호남 향우회, 해병대 전우회, 고려대 교우회를 꼽는다. 같은 고향 출신이라는 동질감이거나 함께 죽도록 고생했던 군 생활 혹은 고유한 학풍과 선후배간의 연대의식 같은 것이 이들의 유대를 강화시켰기 때문일 것이다.

가족 이 외에 당신이 속해 있는 단체(직장, 학교, 교회, 동호회 등) 중에서 특별한 소속감과 애정을 느끼는 단체 세 개를 적어 봅시다. 이 중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단체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인원이 너무 많으면 한 그룹에 4~6명 단위로 나누되 가급적 지난주에 함께 했던 그룹과는 다른 사람들로 구성되게 한다.
- 이러한 활동은 각 리더들이 소그룹을 이끌 때에도 자주 활용되는 활동이므로, 이와 같은 기회에 모든 리더들이 적극 참여하여 체험해 보도록 권한다.
- 아이스브레이커(icebreaker)는 소위 '얼음'(ice)을 '깨뜨리는 사람 또는 활동'(breaker)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로서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고 모든 구성원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젖어들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 한 사람이 아이스브레이커의 내용을 읽은 다음 각자 자신이 속한 단체를 3개씩 적어 보게 한다. 그중에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단체 하나를 그룹원들과 나눈다.

## 바이블 스터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새,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막 2:1~5)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황당하리만치 무모한 행동을 저질렀던 기억이 있습니까?

---



---

만일 당신이 본문에 나오는 집의 주인이었다면 참으로 황당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명의 사람들이 지붕까지 뜯을 수 있었던 동기는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합니까?



---

---

본문에 펼쳐지는 광경을 조용히 묵상해 보십시오. 중풍병자와 네 명의 친구들의 모습에서 우리 소그룹이 본받아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



- 제한시간 : 15분
-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 중풍병자, 네 사람, 무리, 예수님.
- 네 명의 동료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고자 했으나 군중에 막히고 말았다. 그들은 차라리 또 하나의 장애물인 지붕을 뚫기로 한다. 마침내 그들은 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아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추구할 소그룹의 완벽한 모형이다.
- 도입-토의-적용의 질문을 차례로 던지고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라.
- 제한 시간 1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감각적으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라.
- 발표하기 전에 각자가 질문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1분의 시간을 허용한다면 훨씬 더 쉽게 토의에 참여할 것이다.



## 소그룹 연구

교회는 사역을 위해 존재하고, 사역은 소그룹을 통해 가장 이상적으로 펼쳐질 수 있다. 성도들이 소그룹 안에서 함께 사역을 펼칠 때 그것을 ‘팀사역’(team ministry)이라고 부른다. 팀사역은 성경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가장 효율적인 사역의 형태이다.

### 1. 팀사역의 성경적 근거

#### 1) 창조와 구속 사역에 나타난 팀사역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 1:26). 창조사역에 나타난 하나님(엘로힘)은 복수 형태로 나타나 있는데, 이는 총 지휘자이신 성부 하나님과 실행자이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집행자이신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연합하여 팀으로 일하신 것을 볼 수 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구속 사역을 성취해 가실 때에도 삼위 하나님은 완벽한 조화 속에 연합하여 일하셨다.

#### 2) 예수님과 열두 제자

“이에 열둘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막 3:14-15). 예수님은 열두 제자와 함께 팀을 이루어 사역하셨다. 이제 그분과 더불어 친밀한 교제 가운데 배운 제자들이 그분께서는 하시던 똑같은 방법으로 사역을 수행할 것이었다.

#### 3) 초대교회의 소그룹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이 직접 지도하던 초대교회는 어떤 형태를 띤 교회였을까? 하루에 3천 명, 5천 명이 회심했을 때 그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수용할 만한 건물이 있었을까? 아마도 오늘날과 같이 수천 명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건물은 없었을 것이다.

많은 학자들은 그 당시의 교회 형태는 오늘날과 달랐을 것이고 가정 중심의 소그룹 형태로 모였을 것이라고 말한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행 2:46-47)

#### 4) 사도 바울과 팀사역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뢰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행 20:4, 5). 여기에 등장하는 일곱 명의 동역자들은 사도 바울과 믿음 안에서 연합하였고, 복음 전파에 헌신하였으며,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서로 믿음을 격려했다.



- 제한 시간 : 20분
  - 팀사역의 3가지 종류
1. 목회자들간의 팀사역(목회자가 많은 대형교회)
  2. 목회자와 평신도간 팀사역(대형 및 중형교회)
  3. 평신도들 간의 팀사역(소형교회도 가능)
- 본 교재에서 사용하는 팀사역 용어는 위의 3번에 해당한다.
- 구속 사역에서 삼위 하나님이 함께 등장하는 경우들
    - 1) 수태고지(눅 1:35)
    - 2) 침례 받으심(마 3:16, 17, 막 1:10 11)
    - 3) 변화산에서(마 17:5~8, 막 9:7, 8, 눅 9:34~36)
  - 12라는 숫자는 다양한 그룹으로 묶기에 좋은 숫자이다. 2명씩 6그룹, 3명씩 4그룹, 4명씩 3그룹, 6명씩 2그룹, 12명이 1그룹이 될 수 있다.

## 2. 팀사역의 장점

- 1) 팀사역은 개인전도보다 더 효과적이다.
- 2) 친밀감이 높아지고 상호의존적 관계가 형성된다.

- 3) 신자들의 목회자 의존적 성향을 줄여준다.
- 4) 기동성과 융통성이 발휘된다.
- 5) 새 신자의 유입통로가 되며, 새 신자 정착률을 높여 준다.
- 6) 신자들의 참여와 은사 활용의 기회가 된다.
- 7) 리더 훈련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 교회가 큰 건물의 예배당을 소유하게 된 것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후의 일이다. 교회마다 앞을 다투어 웅장한 건물을 짓기 시작했는데, 그와 같은 교회의 형태가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주장하는 이들 중에는 가정교회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다.
- 사도 바울은 누구로부터 소그룹 사역을 배웠을까? 그는 아마도 동역자인 바나바로부터 배웠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바나바는 틀림없이 열두 사도로부터 예수님의 사역 방식인 소그룹 사역을 배웠을 것이다.
- 팀사역의 7가지 장점을 하나하나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라.

## 적용을 위한 그룹활동

1. 앞에서 살펴본 '팀사역의 7가지 장점' 중에서 가장 공감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



---

2. 개인 전도와 팀사역을 비교해 본다면 각각 어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개인전도와 팀사역 중 어느 쪽에 더 집중해 왔다고 생각합니까?

---



---

3. 이번 과를 통하여 배운 내용을 기초로 소그룹 사역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1분 간 얘기해 보십시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옴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무를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니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전 4:9~12)



• 개인전도와 팀사역 비교

개인전도	팀사역
단독	협력
쉽게 좌절	서로 격려
지속 어려움	지속 쉬움
전도에 초점	사역에 초점
결과 중시	과정 중시

• 팀사역과 도미노 원리

팀사역은 교회가 당면한 많은 문제의 도미노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 첫 번째 도미노와 같다. 팀사역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1. 목회자 의존적 교회 상황
2. 교인들의 제자훈련 미흡
3. 지도자 양성 시스템 미비
4. 낮은 정착률과 높은 낙심률
5. 성도간의 친밀감 결여
6. 내부지향적인 교인들의 성향
7. 교단에 대한 외부인의 편견
8. 선교에 대한 신자들의 두려움
9. 새 신자들에게 대한 거부감
10. 새로운 선교전략의 필요성

# 소그룹과 리더

## 오프닝 스토리

미국의 독립 전쟁 중 사라토가 전투 때의 일이다. 미국의 독립을 부르짖던 애국 투사들은 오로지 영국군 장교들을 목표로 사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리고 그 전략은 성공적이었다. 미국군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사병들보다 장교들을 겨냥하여 사살하는 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조엘 코미스키, 탁월한 소그룹 리더의 7가지 습관, 36).

어느 조직체든지 리더가 중요하다. 리더가 흔들리면 조직 자체가 흔들린다. 소그룹 사역에서도 리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 없다. 리더가 실족하면 소그룹도 쉽게 와해돼 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그룹 리더는 사탄의 집중적인 공격의 대상이 된다. 사단은 교회가 잘 훈련된 리더들을 보유하고 있는 한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리더들만 쓰러뜨리면 승리를 확실하게 거머쥘 수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 이 이야기를 통해 소그룹 사역에서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다. 리더 자신들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음을 강조한다.

## 아이스브레이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습관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간다. 습관이란 오랫동안 되풀이하여 몸에 굳어진 행동이다. 습관에는 좋은 습관도 있지만 안 좋은 습관도 있다. 나쁜 습관을 고치지 않고 내버려두면 중요한 순간에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다.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달라진다.” 톨스토이는 말하기를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했다.

1. 당신에게 버리고 싶은 습관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며 왜 그럴습니까?

2. 그것을 고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 하나의 새로운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평균 33일 동안 의도적으로 그것을 반복해야 한다고 한다.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최소 21일을 반복해야만 그것이 습관으로 굳어진다고 한다. 습관이란 참 신기한 것이다. 습관을 들이는 일이 처음에는 귀찮고 불편하지만, 일단 습관화되고 나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불편해진다.
- 함께 대화를 나누는 중에 누군가 습관을 고치기 위해 자신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면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어 주라.

## 바이블 스터디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가로되 그대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이뇨?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의 곁에 섰느냐?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그대와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재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이를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릇 큰 일이면 그대에게 베풀 것이고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출 18:14, 17, 18, 21, 22)

민수기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그 종족을 따라 이십 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이스라엘 중에서 다 계수함을 입었으니,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3,550명이었더라”(민 1:45, 46)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은 각각 몇 명씩이었을까요?



- 천부장 : 603명    • 백부장 :
- 오십부장 :
- 십부장 :     • 리더의 합계 :  명



만일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이 리더들을 세우고 조직화하지 않았다면 분명 오합지졸이 되었을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리더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



- 제한 시간 : 10분
- 출애굽 당시 리더 현황  
천부장 : 603명 백부장 : 6,035명 오십부장 : 12,071명 십부장 : 60,355명  
리더 합계 : 79,064명
- 통계적으로 보면, 어떤 조직체에서나 평균 약 15%의 사람이 리더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평균 6명당 1명꼴로 리더가 있다는 것이다.
-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1) 재덕이 겸전한 자 곧 2)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3) 진실무망하며 4) 불의한 이를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출 18:21)

## 소그룹 연구

양의 무리와 늑대의 무리가 싸움을 벌일 경우에, 양의 무리 지도자는 늑대이고, 늑대 무리의 지도자는 양이었다면, 과연 어느 무리가 이길까? 이 경우에 정답은 양의 무리가 승리한다는 것이다. 그 까닭은 지도자의 능력이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 1. 누가 리더가 될 수 있나?

나이나 성별이나 교육의 정도 또는 사회적 지위나 교회 내에서의 직분 등이 리더의 조건이 될 수 없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리더로서의 은사와 소양이 있는 사람, 자신이 책임진 그룹을 이끌기 위해 시간을 바칠 수 있는 사람, 자신을 따른 사람



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돌보는 사람, 말과 행동에 있어 모본이 되는 사람, 그리고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의사소통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한다. 은사 테스트를 통해 자신이 리더로서의 소질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은사 테스트 설문지는 본 교재의 부록에 있음).

## 2. 리더의 핵심 자질

어떤 그룹의 리더냐에 따라 필요한 소양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의 소그룹 리더는 다음과 같은 핵심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 1) **분별력** : 영적 식별력이 있는 리더는 사람들을 자신이 원하는 곳이나 그들이 원하는 곳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한다.
- 2) **배려심** : 타인 중심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따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영적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도와주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3) **지도력** : 어떤 그룹이든지 나아가고자 하는 목표와 방향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그룹은 파산한 배처럼 떠돌다가 침몰하고 만다. 주어진 사역 (ministry)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매순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이끌어가는 추진력이 필요하다.

## 3. 리더의 핵심 기술

리더는 다음과 같은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습득해야 한다.

- 1) **커뮤니케이션 능력** : 리더는 의사소통의 기술을 익혀야 한다. 그 중에서도 경청의 기술과 설득의 기술이 중요하다.
- 2) **팀워크 기술** : 구성원들을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시키고, 그들이 소속감과 연대의식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3) **전략 지향적 마인드** : 분석적 사고를 가지고 사역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가시적 성과를 거두도록 경영할 수 있어야 한다.

### 〈반원들을 격려하는 방법〉

1. 성취한 일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강조하여 직접 칭찬해 준다.
2. 평소에 확신을 심어주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행동으로 보여 준다.
3. 힘들어 할 때는 같이 있어 주며 자상하게 배려해 준다.

– 조엘 코미스키



- 양과 늑대의 우화를 통해 리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리더들을 훈련시키는 코치는 관현악단의 지휘자와 같다. 리더들을 잘 훈련시키지 않고는 교회 부흥이라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내기 어렵다.
- 교회의 제직(장로, 집사 등)과 소그룹 리더는 다르다. 장로라고 해서 반드시 소그룹 리더가 되는 것도 아니고, 집사가 아니라고 해서 소그룹 리더가 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으나 모든 사람이 리더의 자질을 가진 것은 아니다.
- 이기적인 리더는 사람들을 이용하여 자기가 목적인 바를 이룬다. 훌륭한 리더는 사람들을 도와서 그들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돕는다. 그러나 “영적인 리더는 사람들을 하나님 이 원하시는 곳에 이르도록 이끈다.”(블랙커비)
- 세상의 관점에서 리더는 힘과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성경적 관점에서 리더는 섬기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친히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셨는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까지 하셨다.
- 체로키 인디언의 경청 지혜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면 고향소리를 듣지 않아도 된다.”
- 팀워크를 높이는 기술 중 하나는 격려하는 것이다. UCLA의 농구 코치인 존 우든은 선수들에게 이렇게 권했다. “득점을 했을 때 자기에게 공을 넘겨준 동료에게 고맙다는 뜻으로 미소를 짓든지 눈짓을 살짝 해 주든지 고개를 끄덕여 주라.” 그러자 한 선수가 “그 친구가 딴 데 보고 있으면 어떡하죠?” 그러자 코치가 말했다. “분명 그 친구는 자네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을 걸세.”(코미스키)
- 격려가 지나치면 교만해진다고 걱정하지 말라. 격려는 좀 과해도 된다. 소그룹 리더들이 그만 두는 가장 큰 이유는 격려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 적용을 위한 그룹활동

1. 리더십의 측면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

---

2. 리더는 태어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까?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자질이 부족해도 열심히 노력하면 리더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소양과 자질이 부족한 사람은 리더로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까?

---

---

3. 리더로서 나에게 부족한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요? 옆 사람들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얘기해 봅시다.

---

---

4. 함께 식사하는 것이 사람들을 연합시키는 데 참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던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

---



- 장기적으로 볼 때, 리더십의 은사를 가진 이들을 처음부터 잘 선발하는 것이 그런 은사가 없는 이들을 붙들고 많은 공을 들이는 것보다 훨씬 낫다.
- 리더를 선발하기 전에 반드시 영적 은사 테스트를 실시해야 한다.
- 교회 재정이 허락한다면 소그룹 사역을 시작하는 초기에 소그룹 구성원들 간의 친목을 위하여 리더들에게 쿠폰을 발행하면 좋다. 예를 들어, 5만 원짜리 쿠폰을 리더들에게 나눠주고 2개월 정도 유효기간을 준다. 소그룹이 함께 모여 식사하면서 모임을 가진 후 영수증을 가져오면 서기가 쿠폰 한도액까지 영수 금액을 현금으로 준다.

## 오프닝 스토리

직업을 선택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할까, 아니면 잘하는 일을 해야 할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잘하는 일에서 비전을 찾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좋아하는 일을 잘할 수 있다면 제일 좋겠지만, 그런 사람은 많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않다. 좋아하는 일도 직업이 되면 더 이상 좋지만은 않게 된다. 좋아하는 일은 취미로 삼고, 잘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내가 더 빛난다는 것이다.

미국 농구의 전설로 불리는 마이클 조던의 경우 어릴 때부터 야구를 좋아했고 야구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알다시피 그가 잘하는 것은 농구였다. 물론 농구를 하다가 야구선수로 댈 적도 있었지만 빛을 보지 못하고 다시 농구선수로 돌아왔다.

좋아한다고 해서 꼭 그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좋아하는 일은 취미로 즐기고, 잘하는 일 속에서 비전을 찾는다면 좀 더 빨리 성공에 가까워질 것이다(이영석, 인생에 변명하지 마라, 124).



- 시카고 불스(Chicago Bulls)의 간판스타였을 뿐 아니라 미국 농구계의 전설로 꼽히는 마이클 조던이 어느 날 갑자기 농구를 그만 두고 자기가 좋아하는 야구를 하기 위해 시카고 화이트삭스(Chicago White Sox) 팀에 입단했다. 그러나 결과는 썩 좋지 않았다.
- 리더들 가운데 자신이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이 일치하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라.
- 신앙생활에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 과에서 배우게 될 것이다.

## 아이스브레이커

누구나 어린 시절에 꿈이 있지만 그 꿈을 그대로 이루고 사는 사람은 흔치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점점 자라면서 꿈을 거듭 수정하고 현실에 자신의 눈높이를 맞추게 된다. 그래서 가끔씩 어릴 적 꿈과 자신의 현재 모습을 비교하면서 '아,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하고 아쉬워하기도 한다.

이 시간 함께 인생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 각자가 걸어온 삶의 궤적을 잔잔히 돌아보면서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 보자. 상대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갈수록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 것이다.

1. 열 살 때쯤 자신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2.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신의 삶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의 나를 만들어 준 소중한 만남은 무엇이었습니까?

3. '성공'이란 의미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굳이 '성공'이란 단어를 붙인다면 나는 어떤 면에서 성공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합니까?



- <아이스브레이커>는 서로 친해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편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좋다.
- 제한 시간 : 15분
- 짧은 시간에 여러 사람이 나눌 수 있게 하려면 그룹을 작게 나누면 된다. 한 그룹에 3~4명씩 묶어서 이야기를 나누게 하라. 1인당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알려주고, 중간 중간에 남은 시간을 알려 줌으로 모든 사람이 다 나눔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하라.

## 바이블 스터디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으매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우니라. 룯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겹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행 9:36-42)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남에게 봉사했을 때 느낌이 어떠했습니까?



본문은 과부들의 울음을 자아냈던 도르가의 죽음과,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을 믿게 한 그녀의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르가의 선행과 구제는 구체적으로 과부들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었습니까?



당신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기술이나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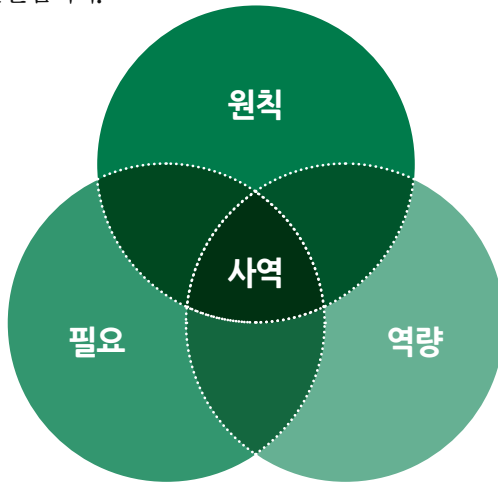
- 도르가는 과부들에게 속옷과 겹옷을 지어 줌으로써 그들을 보살폈다.
- ‘다비다’는 히브리어 이름의 아람어 표기이며, ‘도르가’는 헬라어 이름이다. 그녀는 초기교회가 직면했던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의 갈등(행 6:1) 속에서도 모든 과부들을 위해 묵묵히 봉사했던 것으로 보인다.
- “다 비다.” → “도로 가!”  
자신을 “다 비우고” 많은 선행과 구제를 행했던 그녀를 위해 과부들이 진심으로 애도하자, 베드로는 그녀를 살려 일으켜서 너는 “도로 가”라. 가서 계속 착한 일을 행하라고 말한 것처럼 보인다.
- 도르가는 자신의 주특기인 바느질 솜씨를 활용하여 연약하고 소외된 이웃 즉 과부들의 필요를 채워주었다. 우리도 자신의 강점을 활용하여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사역을 할 수 있다.



## 소그룹 연구

### 1. 사역 분야의 선정

제1과 <적용을 위한 그룹 토의>에서 보았던 다음 도표를 다시 주목해 보자. 사역이란 세 개의 동그라미 즉 말씀의 원칙과 사람들의 필요, 그리고 교회의 역량이 함께 만나는 지점에서 발생한다. 이 중에서 '사람들의 필요'야말로 사역의 진정한 출발점이다.



 교회가 위치한 지역 사회의 필요가 곧 사역의 분야라면 그 필요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가?

- 1) 관찰 : 사람들의 살아가는 형편을 면밀히 살핀다.
- 2) 면담 : 사람들과 인터뷰를 해 보면 알 수 있다.
- 3) 설문 : 구체적인 항목이 적힌 설문을 통해 필요를 파악한다.
- 4) 문의 : 주민 센터나 구청 혹은 시청 담당 공무원과 상의한다.

## 2. 사역팀 구성의 기준

교회에서 소그룹을 편성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소그룹 편성의 기준으로 흔히 사용되는 것들로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자.

- 1) **지리적 구역을 기준으로 한 구역반** : 이동 거리는 가까우나 마음은 멀 수 있다.
- 2) **연령을 기준으로 한 또래집단** : 쉽게 어울릴 수 있으나 배타적이 되거나 불필요한 세력 형성의 위험이 있다.
- 3) **취미나 적성을 기초로 한 놀이집단** : 모임이 즐겁고 잘 어울리나 재미를 추구하는 쪽으로 기울기 쉽다.
- 4) **직업을 기준으로 한 전문가 집단** : 전문 직업인들에게 매력을 주나 배타성이 강하다.
- 5) **영적 은사를 기준으로 한 은사 집단** : 서로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는 있으나 은사 쓸림 현상을 피할 수 없다.
- 6) **신앙 성숙도를 기준으로 한 수준별 집단** : 향상의 의지를 심어 주고 미숙한 자를 배려하나 사역이 약하다.

각각의 기준들이 제각기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가 소그룹을 편성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두 가지 조건은 1) 내부의 응집력과 2) 사역의 방향성이다. 내부 응집력은 구성원들 간의 공통점이 많을수록 강해진다. 그리고 사역의 방향성은 구성원들이 공통의 사명을 추구할 때 강해진다. 즉 구성원 개개인이 느끼는 열정 분야가 서로 같을 때 사역팀은 비로소 방향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 3. 사역의 분야들

스탠리 오토(Stanley Ott)는 사역의 분야를 크게 4가지로 분류했다.

- 1) **성경의 명령** : 예배, 찬양, 성경교수, 제자훈련, 친교, 선교 등

- 2) **사람들의 필요** : 병자, 갇힌 자, 유가족, 재정 위기자 등
- 3) **인생의 단계** : 어린이, 청년, 장년, 독신자, 직장 여성, 은퇴자 등
- 4) **흥미와 관심사** : 운동, 여행, 다이어트, 취미, 예술, 기계 등

#### 4. 소그룹 편성 요령

- 1) **중앙 통제식** : 교회 직원회나 안식일학교에서 일방적으로 편성함
- 2) **본인의 선택** : 사역 목록을 제안하고 각자 원하는 사역을 선택함
- 3) **리더가 선택** : 리더가 함께 사역할 팀원들을 리크루트(recruit)함
- 4) **배치 위원회** : 사역배치 위원회가 은사 테스트와 상담 후 배치함



- 말씀의 원칙, 사람들의 필요, 교회의 역량 이 셋 중에서 흔히 무시되기 쉬운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람들의 필요'이다. 하지만 사람들의 필요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교회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시작한 사역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교인들만의 잔치로 끝나기가 쉽다.
-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의 필요를 파악하는 일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이다.
- 지역이나 연령, 취미나 적성, 직업이나 은사 등을 전혀 고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것들은 2차적인 고려사항이라는 것이다. '사역'을 중심으로 반을 편성한 다음 얼마든지 고려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역' 중심의 소그룹 편성은 내부 응집력과 사역의 방향성을 강하게 해주는 가장 우선적인 기준이기 때문이다.
- 중앙동에 사는 사람들끼리 한 반이 된 경우보다 초등학교 자녀를 둔 엄마들끼리 한 반에 속한 경우에 응집력이 더 강하다.
- 빌 하이벨스는 <네트워크>라는 책에서 "사역팀 구성 시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기준은 열정(passion)이며, 개인이 열정과 흥미를 느끼는 분야가 곧 사역의 분야"라고 했다. 예를 들어, 만일 내가 사별의 아픔을 겪은 유가족을 위한 사역에 왠지 모를 열정을 느낀다면 이것이 곧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사역 분야라는 것이다. 이것은 내가 잘 하는 일 즉 은사와 구별된다. 은사가 활용되는 것은 사역팀 안에서의 일이다. 같은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팀을 이루고, 그 팀 안에서 각자의 은사를 발휘함으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다.
- 소그룹 편성 요령에는 제시된 4가지 방법 외에도 '절충식'이 하나 더 있다. 예를 들면, 리더 자신이 함께 사역할 팀원들을 50% 정도 뽑고, 나머지 50%는 자원자들로 채우는 방법이다.

## 적용을 위한 그룹활동

1. 지역이나 연령, 취미나 직업 또는 은사가 아닌 자신이 '열정'을 느끼는 '사역'을 중심으로 소그룹을 편성한다면, 소그룹 편성 요령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무엇 일까요?

- 1) 중앙 통제식 2) 본인의 선택 3) 리더가 선택 4) 배치 위원회

2. 현재 우리 교회는 무엇을 기준으로 사역팀을 편성하고 있습니까? 만약 지역을 기반으로 편성되었다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

3. 스탠리 오토(Stanley Ott)가 분류한 사역의 분야들 중에서 자신이 꼭 하고 싶었던 한 가지 사역은 무엇입니까?

- 1) 성경의 명령 : 예배, 찬양, 성경교수, 제자훈련, 친교, 선교 등  
2) 사람들의 필요 : 병자, 갇힌 자, 유가족, 재정 위기자 등  
3) 인생의 단계 : 어린이, 청년, 장년, 독신자, 은퇴자 등  
4) 흥미와 관심사 : 운동, 여행, 다이어트, 취미, 예술, 기계 등

4. 각 소그룹 인원은 몇 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

.....



- 자신이 열정을 느끼는 “사역” 중심으로 소그룹을 편성한다면 2) 본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방식이나 4) 사역 배치 위원의 배치 방법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
- 사역팀을 지역 중심으로 편성할 때의 단점은 공통분모가 약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리적으로 이동 거리가 짧다는 장점을 살려서 신자들이 너무 멀리 떨어져 사는 경우나, 이동 수단이 취약한 노인들을 위해서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소그룹을 편성하는 것이 좋다.
- 사역팀의 크기를 결정하는 두 가지 요인은 1) 회원들 간의 친밀감과 2) 사역할 수 있는 역량이다. 즉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작고, 사역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커야 하는데, 대체로 4~8명으로 그룹을 묶을 때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 재림교회와 소그룹

## 오프닝 스토리

18세기 후반 유럽에서의 종교적 분위기의 변화는 두 개의 혁명으로 대표될 수 있는데, 하나는 프랑스에서 일어난 유혈혁명이고 다른 하나는 영국에서 일어난 무혈혁명이다. 프랑스혁명은 대량 살상과 정치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며 인본주의로 흘러간 반면에, 영국에서의 혁명은 부흥운동으로 나타났으며 신본주의로 돌아가고자 하는 강한 열망으로 뜨거웠다. 이 부흥운동을 이끈 두 명의 지도자는 존 웨슬리와 조지 헛필드였다.

이 두 사람은 동시대 인물로서 옥스퍼드 대학의 '홀리 클럽(Holy Club)에서 함께 활동했으며 탁월한 대중 설교자로 명성을 얻었다. 특히 헛필드의 웅변적인 설교는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었다. 이 두 사람의 헌신적 활동으로 수많은 영국인들이 회심을 경험했다.

그러나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두 사람은 큰 차이를 보였다. 웨슬리는 속회(class meeting)를 중심으로 한 소그룹 사역을 강조하고 소그룹 리더를 훈련시키는 일에 힘쓴 반면에 헛필드는 설교에 집중했다. 결과적으로 웨슬리의 사역은 많은 훈련된 신자들을 남기고 감리교 탄생에 공헌하였으나, 헛필드의 사역은 그의 죽음과 함께 거의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재림교회 초창기 역사를 보면 많은 감리교 출신 지도자들의 영향으로 '영적친교모임'(social meeting)으로 불리는 소그룹 활동이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 재림교회는 이런 모임을 기초로 급격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고, 많은 지도자들을 탄생시켰다. 재림교회의 역사와 소그룹 사역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 〈오프닝 스토리〉는 그냥 읽고 지나가는 정도로 가볍게 다루어도 좋다.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말라.
- 웨슬리와 헛필드는 교회 운영 방식뿐 아니라 교리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였다. 헛필드는 칼뱅의 예정론을 지지했지만 웨슬리는 반대했다. 웨슬리가 예정론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것이었다. “만일 구원받도록 선택된 사람과 멸망당하도록 버려진 사람이 정해져 있다면 복음전도나 설교는 헛된 일이다. 왜냐하면 구원받도록 선택된 사람은 설교를 듣든 아니 듣든 구원을 받을 것이고, 멸망당하도록 버려진 사람은 설교를 듣든 아니 듣든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 아이스브레이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달리고 싶으면 혼자 가고, 멀리 가고 싶으면 같이 가라”는 말이 있다. 이 속담은 우리 인생에서 동행의 의미를 가르쳐 준다. 흔히 인생은 100m 달리기와 아니고 마라톤이라고 한다. 우리에게 인생의 레이스를 함께 달릴 러닝메이트(running mate)가 필요하다.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실패하여 넘어질 때, 함께 멈추어 서서 일으켜 줄 동료자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실패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실패를 극복할 수 있도록 곁에서 힘을 주었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혹시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는 아닙니까? 소그룹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은 어떻습니까?



- 제한 시간 : 10~15분
- 리더의 수가 많으면 작은 그룹들로 나누되, 3~4명씩 묶어서 이야기를 나누게 하라. 각 그룹마다 임시 리더를 한 명씩 정하여 모두가 골고루 참여하도록 조정자의 역할을 하게 한다. 1인당 평균 3분 정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 서로 나눈 다음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라.

## 바이블 스터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고전 12:12~20)



사람마다 신체의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의 몸에서 가장 약한 장기나 기관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





본문에서 말하는 ‘몸’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상징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몸에 비유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 1) 몸의 지체들은 머리의 지시를 받는다.
- 2) 모든 지체들은 일사분란하게 움직인다.
- 3) 모든 지체는 다 소중하다.
- 4) 모든 지체들은 아픔을 서로 나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참 소중하게 느껴졌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



---



- 제한 시간 : 10분
- 가급적 3~4명 단위로 소그룹을 나누어 토의하게 하라.
- 2번 질문은 하나의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열린 질문’이다. 따라서 각자의 생각을 존중해 주고, 굳이 하나의 결론으로 끌어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다.

## 소그룹 연구

### 1. 교회와 소그룹

빌 도나휴에 따르면, 교회는 소그룹을 인식하는 관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부류로 나뉜다.

- 1) 소그룹이 있는 교회(church with small groups)
- 2) 소그룹의 교회(church of small groups)
- 3) 소그룹 교회(church is small group)

첫째 부류인 '소그룹이 있는 교회'에서는 원하는 사람만 소그룹 사역을 하며, 소그룹은 단지 선택 사항일 뿐이다. 둘째 부류인 '소그룹의 교회'에서는 소그룹을 동질 그룹으로 편성하고, 친교와 성장과 선교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삼는다. 교인이 되려는 것은 반드시 소그룹에 소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부류인 '소그룹 교회'에서는 지역에 따라 소그룹을 편성하고, 각각의 소그룹 자체가 하나의 교회가 된다.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모델일까? 도나휴에 따르면,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둘째 부류인 '소그룹의 교회'라고 한다. 소그룹 사역은 친교와 영적 성장과 선교를 위한 필수조건이 되어야 하며, 그렇다고 소그룹 자체가 독립된 교회가 되기보다는 소그룹들이 함께 연계적으로 일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 2. 재림교회와 소그룹

엘렌 G. 화잇은 일찍이 영감의 글에서 소그룹 사역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그리스도인의 활동의 기초로서 작은 단체들(small companies)의 형성이 실수할 수 없는 분에 의하여 나에게 제시되었다. 만일 교회 안에 큰 수의 사람들이 있다면, 교인들을 작은 단체들로 형성하여 교인들을 위해서뿐 아니라 불신자들을 위해 일하게 해야 한다. 한 장소에 진리를 아는 사람이 두세 사람만 있을지라도 그들은 스스로 일꾼의 단체를 형성해야 한다”(교회증언 7권, 21). 이 글에는 소그룹 사역의 필요성과 목적과 방법이 다 포함되어 있다.

현재 재림교회 내에 소그룹 형태로 존재하는 것은 ‘안교 교과반’, ‘안교활동반’, ‘선교 구역반’ 등 3가지가 있는데, 각각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그룹들이 서로 다른 부서에 의해 편성되고, 또 서로 다른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활동한다면 사업의 연계성과 통일성에 있어서 취약성을 드러내고 만다. 따라서 이 그룹들은 하나로 통합될 필요가 있다.

## 3. 소그룹의 3대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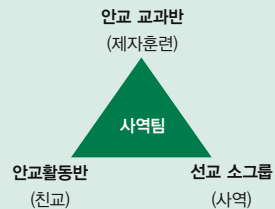
가정에서 소그룹 형태로 모였을 것으로 보이는 초대교회는 친교, 제자훈련,

사역(구제)의 기능을 하나로 통합되어 있었다. 팀사역의 전문가인 스탠리 오트(E. Stanley Ott)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사역팀의 활동에는 제자도, 친구, 사역 등 세 가지 확장 분야가 있다. 사역팀의 생명력은 ‘성장하는 제자들’과 그 구성원들 사이에 존재하는 ‘활발한 친구’, 그리고 ‘선교적 활동’으로 보강될 때 가장 왕성하게 나타난다”(사역팀을 통한 교회의 변화, 64). 오트의 말을 재림교회의 소그룹 사역에 적용한다면 안교 교과반과 안교활동반과 선교 구역반이 하나로 통합될 때 가장 왕성한 생명력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다.

소그룹	활동 내용	활동 시간
안교 교과반	학습을 통한 제자훈련	주말(안식일)
안교 활동반	나눔을 통한 친교	
선교 소그룹	섬김을 통한 사역	주중



- 소그룹 사역은 교회의 여러 프로그램 중 하나가 아니라 교회의 성장 전략 자체가 되어야 한다.
- 일반 개신교회들은 소그룹 사역을 시작하려 할 때, 자원하는 몇몇 사람들을 중심으로 몇 개의 소그룹을 시작하고 점차 전 교인들에게로 확대해 나가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러나 재림교회는 이미 안식일학교에 장년 교과반이 소그룹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전 교인들을 동시에 소그룹 사역에 포함시키는 일이 쉬운 편이다.
- 이미 110여 년 전에 이와 같은 기별이 주어졌지만 교회가 이 기별을 소홀히 해 왔다. 오히려 다른 개신교회가 하는 셀이나 다락방이나 목장이나 하는 것을 역수입해 와서 재림교회에 접목시키려 하니 ‘잘 맞지 않는 옷’이 되고 말았다.
- 개신교 교회성장학자인 칼 조지는 <소그룹 사역의 새로운 방향>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신이 교회에 생기를 불어넣기를 원한다면 주일학교 프로그램 안에 이미 만들어져서 부흥을 기다리는 소그룹 사역이 있는데 왜 소그룹 사역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최근에 많은 개신교회들이 도입하고 있는 성인들을 위한 주일학교 성경공부들을 가리키는데, 이것을 ‘안교 교과반’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 다음의 도표를 간단히 그려서 보여 주면 이해를 도울 것이다.
- 위의 도표에 나오는 ‘주중활동’과 ‘주말활동’에 대해서는 제9과 ‘소그룹 운영의 실제-1’에서 자세히 다루게 된다.



## 적용을 위한 그룹활동

1. 지역교회를 중에는 안교 교과반과 안교활동반과 선교 소그룹이 하나로 통합된 교회도 있고 분리되어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 그룹들을 하나로 통합했을 때 좋은 점들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

---

2. 교회 찬양대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소그룹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봅시다. 찬양대가 소그룹 활동과 충돌되는 몇 가지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찬양대는 하나의 소그룹으로 활동하기에는 대체로 인원이 너무 많다.
- 2) 찬양대에는 소그룹 리더로 일할 만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경우가 많다.
- 3) 대부분의 교회에서 찬양대 연습 시간은 안교 교과시간 및 안교활동반 시간과 겹친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찬양대원들로 하여금 소그룹에 소속되어 활동에 동참하게 할 수 있을까요?

---

---



- 셋을 하나로 통합했을 때 다음과 같은 장점들이 있다.
  - 1) 안교활동반 시간에 지난 주 사역을 검토하고 다음 주 사역을 계획함은 주말과 주중 활동 사이에 연계성이 높아진다.
  - 2) 하나의 팀이 되어 말씀 연구와 깊이 있는 친교뿐 아니라 사역까지 함께 함으로 시너지효과를 누릴 수 있다.
- 찬양대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안식일 순서의 시간 조정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1. 안교순서(20분)
  2. 경배와 찬양(20분)
    - 이때 찬양대가 연습을 함
  3. 안식일예배(60분)
    - 찬양대 역할이 끝남
  4. 안교활동반+교과토의(50분+)
    - 찬양대원들도 소그룹 참여
    - 시간제약 없이 교과를 토의
- 또 하나의 해법으로는 찬양대 대신 여러 '찬양 사역팀들'(소그룹 형태의 남성, 여성, 혼성 중창단, 관현악단 등)을 두어 예배 시의 특창뿐 아니라 안식일에 찬양 사역을 전담하게 하는 것도 제시되고 있다.

# 교사로서의 리더

## 오프닝 스토리

한 젊은이가 대화법을 배우기 위해 소크라테스를 찾아갔다. 이 젊은이는 위대한 철학자에게 자신을 멋지게 소개하려고 미사여구를 써가며 유창하게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가 자기소개를 너무 길게 하는 바람에 소크라테스는 대화법에 관하여 가르칠 시간조차 얻을 수 없었다.

참을성 있게 젊은이의 말을 듣고 있던 소크라테스는 마침내 그 젊은이의 말을 끊고 이렇게 말했다.

“이보게 젊은이! 자네에게는 수업료를 두 배로 받아야겠네.”

그러자 젊은이가 물었다.

“제가 수업료를 두 배나 내야 한다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크라테스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다.

“왜냐하면 자네를 훌륭한 교사로 만들려면 두 가지 기술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일세. 첫째는 혀를 자제하는 법이고, 둘째는 혀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이라네.”

훌륭한 리더는 남의 말을 들어야 할 때와 자신이 말해야 할 때를 아는 사람이다. 이것은 교사로서 리더가 명심해야 할 중요한 주제이다.



-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을 산파술(産婆術)이라고도 하는데, 질문을 통해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상기시키고, 자신의 무지(無知)를 자각하게 한 다음, 자신이 의식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상을 낳게 하는 문답법이다. 이 대화법에서 교사는 산파이고 학생들은 임신부인 셈이다.
- 교사로서 리더는 학생들의 말을 경청해 주고 바르게 질문하는 법을 익혀야 함을 강조하라.
- 재림교회는 일반 개신교회들이 갖지 못한 귀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장년들을 위한 학습의 기회인 안식일학교 교과반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일방적인 주입식 교수 방식으로는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사고하도록 하기가 어렵다.

## 아이스브레이커

〈잡담이 능력이다〉라는 책에서 저자 사이토 다카시는 격의 없이 나누는 잡담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 1) 잡담은 대화라기보다는 ‘사람 사귀기’에 가깝다.
- 2) 우수한 영업사원은 상품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고 잡담만 한다.
- 3) 잡담은 오랫동안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
- 4) 결론을 내지 않아도 상관없다.
- 5) 잡담은 자신보다 상대에게 대화의 주도권을 쥐게 하는 것이다.
- 6) 잡담은 상대가 한 말에 ‘질문’이라는 형태로 되받는 힘이다.
- 7) 절대 빛나가지 않는 화제란 상대가 흥미 있어 하는 이야기다.
- 8) 잡담에서 중요한 것은 공감과 동조이다.
- 9) 잡담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게 된다.
- 10) 낯선 사람도 잡담을 하게 되면 안도감이 생기고 다리가 놓인다.

1. 당신이 솔직하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 놓을 수 있는 상대는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입니까?

2. 소그룹 모임에서 '고백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구성원들 사이에 어떤 약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리더는 부담 없이 잡담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 잡담 자체에 어떤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진지한 대화와 깊이 있는 말씀연구를 위해 마음을 준비시켜 주기 때문이다. 가벼운 일상적 대화는 학생들로 하여금 경계심을 내려놓게 하고 마음 문을 열게 하는 효과가 있다.
- 사람은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사람, 나의 비밀을 지켜줄 사람이 아니면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는다.
- 구성원들 사이의 약속
  1. 서로 간에 나누는 대화는 언제나 진실하고 솔직해야 한다.
  2. 어떤 말도 비난하지 않는다.
  3. 소그룹에서 나눈 대화는 절대 바깥에 누설하지 않는다.



## 바이블 스터디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마 16:13~17)



프랜시스 베이컨 경은 “잘 던져진 질문은 이미 지식의 절반을 얻은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말의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

---



예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직설적으로 설명하시는 대신에 왜 질문을 통해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에 관해 물으셨을까요?

---

---



학생들은 교사로부터 설명을 들을 때보다 질문을 받을 때 더 깨어 있게 되는데,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

---



- 책 소개 : <질문의 7가지 힘> (도로시 리즈 저, 노혜숙 역)
  1. 질문을 하면 답이 나온다.
  2. 질문은 생각을 자극한다.
  3. 질문을 하면 정보를 얻는다.
  4. 질문을 하면 통제가 된다.
  5. 질문은 마음을 열게 한다.
  6. 질문은 귀를 기울이게 한다.
  7. 질문에 답하면 스스로 설득이 된다.
- 예수께서는 이제 곧 당신의 사역의 마지막 장면에 대해 가르치고자 하셨다. 니고데모는 그분을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요 3:2)으로 불렀었다. 그분을 위대한 스승으로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였다. 예수께서는 질문을 통하여 메시아로서의 자신의 신분을 확인시키고자 하셨다.

## 소그룹 연구

지난 시간에 소그룹의 세 가지 기능 즉 1) 학습을 통한 제자훈련(안교 교과반), 2) 나눔을 통한 친교(안교 활동반), 그리고 3) 섬김을 통한 사역(선교 소그룹)이 소그룹 안에 하나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다. 따라서 리더는 각 기능에 따른 역할, 즉 교사와 목양자와 사역자로서의 역할을 잘 익혀야 한다. 이 시간에는 ‘교사로서의 리더’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자.

### 1. 크신 교사이신 예수님

위대한 교사이신 예수께서는 친히 만드신 천연계를 교과서로 삼아 눈에 보이는 것 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로 청중의 시선을 옮기셨다. 그분은 ‘비유’와 ‘질문’을 사용하여 천국의 비밀을 나타내 보이셨다.

### 2. 교수법의 종류

교사가 얼마나 잘 가르쳤느냐 하는 것은 학생들이 얼마나 잘 배웠느냐로 평가된

다. 교사 자신이 아무리 잘 가르쳤다고 자부할지라도 학생의 입장에서 잘 배우지 못했다면 교사는 자신의 교수법에 대해 의문을 가져보아야 한다. 교수 방법을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지만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 작용이라는 면에서 보면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 1) **강의식 교수법** : 교사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한정된 시간에 많은 지식을 전달할 수 있으나 지루해지기 쉽다.
- 2) **단답식 교수법** : 짧은 정답을 말하게 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의 지식을 확인하는 데는 유용하나 깊은 사색으로 이끌 수 없다.
- 3) **토의식 교수법** : 배워야 할 주제를 토론하면서 답을 찾는 방식이다. 진행 기술이 필요하나 최고의 학습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 3. 토의식 교수법의 정의

교사들은 다음과 같은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한다. “말하는 것은 가르치는 것이고 듣는 것은 배우는 것이다.” 학생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과정이 곧 학습의 과정이 될 수 있고, 교사의 입장에서 학생의 말을 경청해 주는 것도 훌륭한 가르침의 과정이 될 수 있다.

토의식 교수법이란 교사가 혼자서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교수법’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학습법’으로서, 질문과 토의를 통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면서 함께 자라게 하는 방법이다.

### 4. 질문과 토의

토의식 교수법에 있어서 질문은 중요하다. 질문은 사색의 문을 열고 토의의 방으로 들어가는 열쇠이다. 질문에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다.


- 1) **폐쇄형 질문** : ‘사실’을 확인하는 질문으로 ‘예’ 혹은 ‘아니오’라는 대답이 나온다.
- 2) **반개방형 질문** : 정답이 객관적이고 유일하다. 학교에서 시험문제를 출제할 때

흔히 사용되는 질문의 형태이다.


- 3) **개방형 질문** : 상대방의 '견해'를 묻는 질문이다. 정해진 답이 없으며 토의식 교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질문의 유형이다.

## 5. 토의를 활성화시키는 요령

- 1) 학생들에게 반드시 예습을 해오게 하라.
- 2) 생각을 유발하는 질문을 던지라.
- 3) 개인을 지명하지 말고, 어느 누구의 답변에도 비평하지 말라.



-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던지신 질문이 100개 이상 나온다.
- 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다.  
"사람들은 들은 것은 잊어버리고, 본 것은 기억하며, 자신이 말한 것은 지키려고 한다."
- 미국 텍사스 주립대의 실험  
학생들을 4그룹으로 나누고 같은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교수한 후 학습효과를 측정했다.  
1) 들려만 주었을 때 : 약 20%                      2) 보여주기도 했을 때 : 50%  
3) 필기도 하게 했을 때 : 70%                    4) 토의/발표를 했을 때 : 90%
- 대한민국 7차 교육과정 특징 : 2000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 제7차 교육과정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라는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 폐쇄형 : "점심 드셨습니까?"
- 반개방형 : "몇 사람과 함께 드셨습니까?"
- 개방형 : "어떤 반찬이 제일 맛있었습니까?"
- 폐쇄형 질문으로 토의를 유도하려면 '아니오'라고 대답하도록 질문하면 된다.  
예 :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은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창 3:1) 이 질문은 분명히 폐쇄형 질문이지만 '아니오'라는 대답을 유도하자 대화가 활발하게 된 사례이다.
- 3가지 유형의 질문을 활용하여 마음을 여는 질문의 단계들  
1) 도입 질문 : 분위기 조성하기  
2) 토의 질문 : 핵심주제 다루기  
3) 적용 질문 : 생활에 적용하기



안교 교과반  
(제자훈련 - 교사)

**사역팀**

안교활동반                      선교 소그룹  
(친교 - 목양자)                      (사역 - 사역자)

소그룹의 3가지 기능에 따른  
리더의 3가지 역할

## 적용을 위한 그룹활동

1. 예수께서 던지신 다음의 질문들은 어떤 유형에 속한 질문입니까? 폐쇄형은 '폐', 반개방형은 '반', 개방형은 '개'로 표시하십시오.

- 1) ▶ 막 8:19 “내가 떡 다섯 개를 오천 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 2) ▶ 요 5:6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 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 3) ▶ 마 16:15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2. 토의 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음의 상황들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 1) 아무도 예습을 해 오지 않아 좀처럼 토의가 일어나지 않는다.
- 2) 학생이 어려운 질문을 던졌는데 교사가 답을 모르겠다.
- 3) 한두 사람이 대화를 독점하려 한다.
- 4) 토의가 과열되어 논쟁으로 치닫고 있다.



1)번 정답 : 반    2)번 정답 : 폐    3)번 정답 : 개

- 1) 예습을 해오지 않아 사전 지식의 부족으로 토의가 일어나지 않으면 전반부는 강의식으로, 후반부는 토의식으로 하는 '절충식'을 고려해 볼 만하다.
- 2) 어려운 질문에 대처하는 요령
  - ① 인정 : “나는 답을 모른다.”
  - ② 되물음 : “질문자의 생각은?”
  - ③ 청취 : “여러분의 생각은?”
  - ④ 문의 : “목사님께 여쭙보자”
  - ⑤ 숙제 : “다음 주까지 과제로.”
- 3) 대화의 독점자를 다루는 법
  - ① 사전에 반원들과 약속한다. “각자 1번 이상 말해야 하고, 3번을 초과하지 않으며, 말할 때는 3분을 초과하지 않는다.” 등
  - ② “다른 분의 얘기도 들어 봅시다” 하면서 재치 있게 끊는다.
- 4) 토의가 논쟁으로 비화될 때 리더는 중립을 지키고, 결론은 각자 내리게 하면서 적당한 시점에 다른 주제로 넘어간다.

# 목양자로서의 리더

## 오프닝 스토리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노르망디 상륙 작전은 아이젠하워 장군에 대한 병사들의 존경심 덕분에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한다. 수많은 병사들은 “사령관님처럼 훌륭한 군인의 부하로 죽을 수 있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며 오히려 위로를 했다고 한다. 오늘날 아이젠하워를 민주적 리더십의 대표적인 인물로 꼽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의 리더십 철학을 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 훌륭한 리더는 ‘가라’고 하지 않고 ‘가자’고 한다.
- 훌륭한 리더는 ‘겁’을 주지 않고 ‘희망’을 준다.
- 훌륭한 리더는 ‘부하’를 만들지 않고 ‘동지’를 만든다.

어느 날 아이젠하워의 탁월한 리더십에 감탄한 기자들이 그를 방문하여 그 비법을 물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책상 위에 긴 끈을 늘어놓더니 뒤에서 밀어 보라고 했다. 기자들이 아무리 밀어 보았으나 끈은 꼬부라질 뿐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그러자 그는 실을 앞에서 잡아당기며 이렇게 말했다.

“이처럼 리더는 술선수범하며 앞에서 이끌어야지 짐승을 몰듯이 뒤에서 몰아선 안 됩니다.”

이 이야기는 소그룹 리더들에게도 교훈하는 바가 크다. 구성원들에게 “정경 잃어라”, “기도하라”, “지각하지 마라” 말하기 전에 자신이 앞장서서 모본을 보인다면 그 영향력은 훨씬 더 강해질 것이다.



- 리더는 교사일 뿐 아니라, 목양자이다. 목자가 양떼를 푸른 초장과 실 만한 물가로 인도하듯이 리더는 구성원들을 사랑으로 이끌어야 한다.
- 아이젠하워의 리더십 철학에서 느낀 점을 간단히 나누라.
- 참고 : 아이젠하워의 규칙  
그는 모든 일을 A, B, C, D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해 처리했다.  
A. 긴급하면서 중요한 일 : 신속히 처리했다.  
B. 중요하나 긴급하지 않은 일 : 여유 있게 처리했다.  
C. 긴급하나 중요하지 않은 일 : 다른 사람을 시켰다.  
D. 긴급하거나 중요치 않은 일 : 끝까지 버렸다.  
이렇게 하자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결코 생기지 않았다 한다.

## 아이스브레이커

다음 상황을 잘 읽고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지방의 한 중소도시에 사는 K 씨는 고등학교 동창이 매달 보내주는 <시조>를 읽으며 언젠가 생활이 안정되면 재림교회에 나가 보리라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된 계기가 의외로 빨리 찾아왔다. 뜻하지 않게 아내가 유방암에 걸려 수술을 하게 되었으나 이미 암이 다른 기관으로 전이된 상태였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는 교회를 찾았다. 평소에 눈여겨 보아둔 시내 외곽에 있는 재림교회를 찾았을 때는 이미 안식일학교가 시작된 지 꽤 시간이 지났을 때였다. 그는 길가에 주차를 하고 큰 용기를 내어 교회 문을 열었다.”

1. 처음 교회를 찾은 K 씨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그가 교회 문을 열었을 때 부터 예배를 마치고 다시 자기 자동차로 돌아오기까지 가장 서먹서먹했을 것 같은 3번의 순간은 언제 언제였을까요?

2. K 씨가 약 2시간 동안 머문 교회가 바로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였다면 K 씨는 몇 명의 교인과 통성명을 하며 인사를 나눌 수 있었을까요? K 씨는 다음 주에 다시 교회를 찾아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 그렇지 않아도 어색하고 마음이 편치 않았을 텐데 다음의 상황들은 그를 더욱 힘들게 했을 수 있다.
 

- 주차를 어디에 하지?	- 어느 좌석에 앉아야 하나?
- 아는 사람 아무도 없네	- 함께 온 자녀는 어디로 가?
- 소개할 때 일어나서 인사를?	- 잘 모르는 노래 투성이네.
- 교과공부시간, 나는 어느 반?	- 학개 2장이 어디 붙어 있지?
- 화장실이 어디야?	- 혼자 앉아 식사해야 하나?
- 주차 안내뿐 아니라, 좌석 안내가 필요하다. 안내자는 처음 온 손님과 잘 어울릴 만한 리더 옆에 앉게 하고 정식으로 소개를 한다. 소개받은 리더는 친절히 도와주고, 반별로 흠어질 때 자기 반으로 모시고 가서 그에게 반원들을 일일이 소개 한다. 점심식사 때 가급적 반원들이 함께 둘러 앉아 담소를 나누며 식사하고 다시 만날 약속을 한 후 배웅을 한다.



## 바이블 스터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삯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헤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삯꾼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요 10:11~15)



성경에서 왜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인 신자들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에 비유했을까요? 양의 어떤 특징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까?

---



---



다음 도표를 완성해 보십시오. 목자의 마음은 한 마디로 어떤 마음입니까?

삯꾼	목자
힘이 들 때면 양들을 포기함	자기 <input type="text"/> 까지 버리며 돌봄
양들을 집단적으로 앎	양들을 <input type="text"/> 적으로 앎
단지 주어진 임무만을 행함	양의 유익을 위해 모두 바침

---



---

## 소그룹 리더로서 예수님을 닮은 작은 목자가 되려면 어떤 마음 자세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선한 목자의 관심은 일(양을 돌보는 일)에 있지 않고 양 자체에 있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소홀히 할 위험성이 있다.
- 양은 스스로 방어할 뿔이나 날카로운 이빨이 없다. 겁이 많고 빨리 달릴 줄도 모른다. 그러면 서도 고집이 센 편이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사 53:6)
- 자기 목숨 까지 버리며 돌봄
- 양들을 개인 적으로 앎
- 사역을 수행하기 전에 사람을 아끼고 보살필 줄 알아야 한다.

## 소그룹 연구

### 1. 관계 공동체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예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 15:12)고 명령하셨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된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한다. 이와 같은 사랑의 공동체는 소그룹을 통해서 가장 잘 형성될 수 있다.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은 당시의 신자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교제하며 함께 떡을 떼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기까지 했기 때문에 일어났다. 그 결과로 교회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행 2:47)

## 2. 영적 친교 모임(social meeting)

초기 재림교회의 '영적친교모임'은 초대교회의 관계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 모임에서 신자들은 간증을 나누고 서로 죄를 고백하며 서로 격려하였다. 이 모임은 초기 재림교회의 정규적인 활동으로 자리 잡았고, 종종 설교는 생략되어도 영적친교모임은 계속 이어졌다. 이 모임은 교리 공부 시간이 아니라 삶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다.

“영적친교모임은 엄숙함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눈물로 죄가 고백되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어지고 용서받기를 갈망하는 마음과,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되기를 구하는 강력한 탄원이 있었다.” (제임스 화잇, 라이프 인시던트, 1:167)

그러나 '영적친교모임'은 재림교회의 잃어버린 유산이 되고 말았다. 엘렌 G. 화잇의 사후에 이 모임은 기도회로 대체되고 그 기도회도 설교시간으로 대체되고 말았다.

## 3. 안교활동반

1991년에 대총회 안교선교부는 재림교회 안에 더욱 친밀한 '관계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안교활동반'을 제안하였다. 이것은 초기 재림교회의 '영적친교모임'을 발전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시간에 반원들은 한 주 동안 겪은 신앙의 승리와 실패의 경험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해 주며, 결석한 반원들과 접촉 중인 구도자를 돌볼 계획을 함께 세우고, 주중에 실시할 구체적인 선교 계획을 논의한다. 그런 다음 교과토의를 통해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는 시간을 갖는다.

한 주일 간의 신앙경험과 사역에 대해 나누는 <안교활동반> 시간이다. 리더는 다음 질문들 중 2~3개를 택하여 함께 나눈다. 리더가 먼저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도 좋다.

**A. 영적 투쟁에서 승리하는 삶** 매사에 믿음 실천하기

- 1) 지난주에 영적으로 승리했거나 실패한 경험은 무엇입니까?
- 2) 지금 현재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떠하다고 생각합니까?
- 3)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체험했습니까?

**B.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 매주 30장 이상 성경 읽기

- 4) 지난주에 성경을 읽으며 깨닫고 실천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 5)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격려와 위로는 무엇입니까?
- 6)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C. 기도와 전도의 삶** 전도할 대상을 위해 기도하기

- 7) 지난주에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까?
- 8)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 9) 하나님께서 주신 봉사의 기회를 어떻게 활용했습니까?



- 일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먼저다. 리더는 사역자이기도 하지만 목양자의 역할이 우선임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 결과를 내기 위해 사람을 잃는다면 그보다 큰 손실이 없다. 관계 형성에 초점을 맞추라.
- ‘영적친교모임’을 ‘SM’이라고도 부르는데 social meeting의 머리글자이다.
- 이 모임에 관해 재림교회 역사학자인 러프보로우는 “53분 동안 117명이 간증을 하기도 했다.”는 기록을 남겼는데, 이는 간증을 짧고 긍정적으로 진행하라는 엘렌 G. 화잇의 권고와 서로 통한다.
- 이 시간은 형식화되지 않고 영적으로 생생하게 살아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 안교활동반 : 영어로 Sabbath School Action Unit인데, 과거의 ‘십분선교회’를 대체하여 생겨난 제도로서 교회 전체가 함께 하던 선교활동을 안교활동반 단위로 실시하도록 전략을 바꾼 것이다. 안교활동반의 길이는 15~20분 정도로 교과와의 시간의 절반 정도로 하면 된다.
- 안교활동반 시간에 박스 안에 있는 질문들을 활용하면 좋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번갈아 던지면서 진행할 수도 있다.
  - 1) “지난 한 주일 동안 감사한 일이나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한 분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누군가 기도요청을 할 경우 리더는 두 번째 질문을 던진다.)
  - 2) “누가 이 분을 위해 자원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기도가 끝나면 또 다시 첫 번째 질문을 던진다. 시간이 허락하는 한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많은 반응들을 위해 기도한다.)

## 적용을 위한 그룹활동

1. 소그룹의 색깔과 분위기는 리더에 의해 크게 좌우됩니다. '안교활동반'을 따뜻하고 편안하며, 서로 인정해주고 보듬어주며, 격려하고 환영하는 분위기로 만들기 위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2. 반원 중 어떤 사람이 자주 결석을 한다면 낙심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석하는 반원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 소그룹에서 우정을 쌓는 요령

1. 집으로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하라.
2. 기념일을 기억하고 축하해 주라.
3. 안교활동반 시간에 아이스브레이크 시간을 가지라.
4. 함께 하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라(운동, 쇼핑, 문화행사 등).
5. 날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 목양자로서의 리더의 역할은 사람을 사귀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왼쪽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참조하여, 리더는 구성원들과 우정을 쌓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도 날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
- 잃은 양이 발생하는 요인
  - 소외감과 관심의 부족
  - 당면한 필요가 충족 안 됨
- 해결책
  - 자주 대화하고 친분을 맺음
  -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힘씀
  - 시험에 들지 않았는지 확인
  - 영적 후견인을 맺어줌
  - 반원들만의 이벤트를 가짐
  - 사역을 통해 결속을 다짐

# 사역자로서의 리더

## 오프닝 스토리

인도의 성자 썬다싱에 관한 이야기다. 어느 추운 겨울날, 그는 한 동료와 함께 눈이 깊이 쌓인 눈길을 걷고 있었다. 이들은 혹독한 추위로 인해 거의 빈사 상태가 되어 더 이상 걸어갈 힘도 없었다. 그때 문득 눈 위에 쓰러져 죽어 가는 한 나그네의 신음 소리를 듣게 되었다. 썬다싱은 마음에 동정심이 일어나 그를 구원하여야겠다고 생각했으나 그 동료는 괜히 그 사람을 살리려다 자기도 죽지 않을까 염려하여 그냥 가버렸다.

썬다싱은 혼자서 죽어 가는 사람의 얼음장 같은 손발을 문지르고 그를 일으켜 세우려 하였으나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썬다싱은 하는 수 없이 그를 등에 업고 험한 눈길을 걷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맨몸으로도 가기 힘들었던 그 험한 산길을 등에 한 명을 업고 걸어가야 했던 것이다. 그러자 썬다싱의 몸에서는 열이 나면서 땀이 흐리기 시작했다. 이 열기로 인해 등에 업혀 있던 사람의 몸도 녹기 시작했다.

마침내 목적지에 거의 다다랐을 때 썬다싱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앞서 간 동료는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그만 얼어 죽고 말았던 것이다. 이때 썬다싱은 문득 깨달았다. 그가 남을 구원함으로 자기 자신을 구원했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사역의 원리를 강조하라. "남을 구원하기 위해 일하는 동안 자신이 구원을 얻게 된다."

## 아이스브레이커

누구나 조금씩은 가지고 있는 미루는 습관! 이 미루는 습관은 좀처럼 고쳐지지 않는다. 청소나 숙제 보고서 작성 같은 것에서부터 다이어트와 심지어 인생의 목표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많은 것들을 미루고 또 미룬다. 단지 게을러서가 아니라 막연한 두려움과 회피하는 태도도 한 몫을 한다. ‘언젠가는 꼭 해야지’ 수없이 되뇌이지만 그 언젠가가 쉽게 다가오지는 않는다.

‘혹시 나는 중요한 것을 미루고 있지 않은가?’ ‘정말 하고 싶은 일, 아니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그 일을 미루고 있지는 않은가?’ ‘아주 오래 전부터 꿈꾸어 오던 일, 모든 열정을 쏟아 부어도 지치지 않을 것 같은 그 일을 계속 미루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꿈을 미루다가 마침내 가슴 가득 후회를 안고 무덤으로 내려간다.

1. 만일 내 인생에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다면, 예를 들어, 딱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그 시한부의 삶을 어떻게 보낼 작정입니까? 그동안 미루어 두었던 어떤 일을 꼭 해보고 싶습니다?

2. 만일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오로지 남을 위해 써야 한다면, 어떤 분야에서 봉사하고 싶습니다?



- 강한 열정을 느끼는 분야가 곧 나에게 맞는 사역 분야다. 만약 안식일학교나 선교회에서 일 방적으로 소그룹을 편성하여 발표해 버리면, 개인의 열정 분야가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그 소그룹에서 열정적으로 사역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소그룹 편성 방법은 신자 개개인이 '사역 목록'에서 자신의 열정 분야를 선택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다.
- 1번 질문과 같은 가상적인 질문을 싫어할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상 어느 누구도 1년의 삶을 확실하게 보장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1년은 고사하고 우리는 하루 앞도 예측할 수 없다.
- 2번 질문은 자신의 열정 분야 곧 '사역 분야'를 찾기 위한 질문이다.

## 바이블 스터디

예수께서는 공생애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봉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 중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셨는지 보기에서 골라 보십시오.

- ▶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
- ▶ 요한복음, 3장 관원 니고데모
- ▶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의 여인
- ▶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의 병자
- ▶ 요한복음, 6장 굶주린 5천명 군중

〈보기〉

- ① 육신적 필요
- ② 정서적 필요
- ③ 영적인 필요
- ④ 사회적 필요
- ⑤ 신체적 필요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만 사람들을 접촉할 때 참 성공을 거둘 것이다. 구주께서는 사람들의 유익을 소원하는 분으로서 그들과 섞이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에 대한 당신의 동정심을 보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봉사하시고, 그들의 신임을 얻으셨다. 그 후에 그분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치료봉사, 143).



• 〈치료봉사〉 143쪽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사역을 행하셨다.

1. 가나의 혼인잔치 ④                      2. 관원 니고데모 ③
3. 사마리아의 여인 ②                      4. 베데스다의 병자 ⑤
5. 굶주린 5천명 군중 ①

- 육신적 필요나 신체적 필요나 거의 같은 개념이지만 베데스다의 병자의 경우는 신체적 필요로, 5천명을 먹이신 것은 육신적 필요로 굳이 구분해 보았다.
- 〈치료봉사〉 143쪽의 말씀을 함께 읽고 예수님이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봉사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 소그룹 연구

### 1. 소그룹의 방향성

수많은 소그룹들이 화려하게 시작했다가 소리 없이 사라지는 까닭은 사역에 대한 뚜렷한 비전이 없기 때문이다. 친교 자체가 목적인 소그룹은 수명이 길지 못하다. 설령 좀 지속된다 할지라도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처럼 결실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란 그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보람 있는 결과를 말한다. 그것이 반드시 침례자라는 영혼의 결실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꾸준한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사람들이 유익을 얻으며, 신자들이 성숙해가

는 경험을 하면 영혼의 수확은 저절로 따라온다.

사역은 사람들의 필요로부터 생겨난다. 교회 안에 청소년들을 돌보아 할 필요가 있을 때 청소년 사역이 생겨나고, 지역에 사는 은퇴노인들이 어떤 필요를 느낀다면 그 필요에 따른 사역이 발생한다. 30-40대 맞벌이 부부들이 자녀 문제로 고민한다면 그들을 위한 특별한 사역이 필요할 것이고, 건강에 관심이 많은 갱년기 여성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한 특별한 건강 사역이 요구될 것이다. 교인들을 위한 양육이든, 대외적인 봉사든 간에 모든 소그룹에는 하나의 뚜렷한 사역이 있어야 방향성을 잃지 않는다.

## 2. 리더와 비전

리더는 사역의 분야들 중에서 자신이 가장 열정을 느끼는 분야를 찾아야 한다. 어려서부터 꿈꾸어 오던 일이라면 더없이 좋을 것이다. ‘언젠가는 그 일을 꼭 해야지’ 하던 일이라면 최상의 선택이 될 것이다. 꼭 그렇지 않더라도 사역의 분야들 중에 가장 마음이 끌리는 것을 택했다면 역시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거기서 비전을 보게 되기 때문이다.

리더가 자신의 열정 분야를 찾고 비전을 갖게 되면 반드시 그 사역을 함께 할 동역자들을 찾게 된다. 이리하여 함께 일할 동역자들과 비전을 공유하게 되면서부터 그 비전은 더욱 빠른 속도로 자라나게 된다.

## 3. 사역을 위한 전략

리더는 사역 전략을 혼자 세워서는 안 된다. 소그룹 구성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전략을 수립하면 그 비전과 전략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적극 동참하게 된다. 전략을 세울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사역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봉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매우 치밀하고 지혜롭

게 전략을 세워야 한다.

#### 4. 재림교회 소그룹과 사역

열정 분야 혹은 사역 분야 중심으로 소그룹을 편성하는 것이 재림교회가 소그룹 활동을 성공시킬 수 있는 비결이다. 머리말에서 언급했듯이 일반 개신교회들과 달리 재림교회는 공식적으로 말씀을 접할 기회가 많다.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예배 뿐 아니라, 안식일학교 교과시간과 가정의 조석예배, 그리고 사경회와 주말부흥회와 전도회 등의 특별 집회까지 다양한 기회를 통해 말씀을 접하고 있다. 그러므로 개신교회가 흔히 하는 방식대로 주중 활동마저 말씀 연구에 몰두한다면 재림신자들은 별다른 매력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 사역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리더는 반드시 주중 모임 시에 실제적인 사역을 펼쳐야 한다.



- 강원도 철원에 소재한 D교회는 9년 이상 꾸준히 '사랑의 빵 나누기' 사역을 이어왔다. 그러는 동안 많은 비신자 자원봉사자들을 얻게 되었고, 단 한 번의 전도회로 15명 이상의 침례자도 내게 되었다.
- 경기도 성남에 있는 G교회는 7년 이상 노숙자를 위한 '무료 급식' 사역을 실시해 왔으며 매주 500명 이상의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이 일을 통해 신자들은 섬기는 삶의 기쁨을 맛보고 있다.
- 충남 천안에 위치한 S교회는 교회 내의 중고등학생들과 그 친구들을 동원하여 노인소풍 등을 돕게 함으로 학생들은 자원봉사 점수를 얻게 하고, 노인들은 말동무를 얻게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 사역 소그룹 전개 과정  
지역사회의 필요 파악 → 사역 분야 설정 → 리더 선정 및 열정분야 발견 → 리더 훈련 및 비전수립 → 소그룹 편성 → 전략 수립 → 사역의 실행 → 평가 및 사역의 조정
- 대부분의 개신교회 소그룹 활동은 친교와 말씀연구 중심이고 실제적인 사역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재림교회 소그룹은 안교활동반과 안교 교과반을 통해 친교와 말씀연구를 하고, 주중 모임 시에는 실제적인 사역이 이루어져야 균형 있는 소그룹 활동이 된다.
- 요즘 '전도소그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사역이 없으면 '전도소그룹'이 아니다.

## 적용을 위한 그룹활동

1. 사역은 필요로부터 생겨난다는 말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

---

2. 재림교회의 소그룹은 주말 즉 안식일에는 안교활동반과 안교 교과반을 통해 친교와 말씀 연구에 집중하고, 주중에는 실제적인 사역을 펼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주중에는 전혀 시간을 낼 수 없는 소그룹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

---

3. 지속적인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사람들은 유익을 얻으며, 신자들은 영적으로 성숙해질 것이고, 이런 과정에서 영혼의 결실은 자연스럽게 맺히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속적인 사역이란 얼마나 오랫동안 이어지는 사역을 의미할까요?

---

---



- 지역사회의 필요가 사역의 출발점이며, 그 필요가 절실할수록 사역의 성공 가능성이 높다.
- 일요일에 모임 수 있으면 좋고, 그마저도 어려우면 안식일 저녁이나 오후에 모임 수도 있다.
- '지속적인 사역'을 특정 기간으로 정할 수는 없지만, 지역 주민들이 사역자들의 진정성을 인정할 때까지 적어도 3년 이상은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

# 소그룹 운영의 실제 - 1

## 오프닝 스토리

어느 동물학교에 관한 우화다. 여러 종류의 동물들이 자신의 취약한 부분을 보강하기 위한 훈련을 받고 있었다. 자신의 취약점을 보강함으로써 좀 더 완벽한 동물로 거듭나기 위해서였다.

오리는 원래 수영을 잘 하지만 자신의 취약 종목인 달리기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뒤통뒤통 달리기 연습에 진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 옆에는 토끼가 훈련받고 있었는데, 토끼는 자기의 주 종목인 달리기 대신 제일 자신 없는 종목 중 하나인 나무에 오르기 훈련을 받고 있었다. 끽끔거리며 나무 위로 오르다가 뒤로 쾅 떨어지기를 수없이 반복하면서 맹훈련을 받고 있었다. 그 옆에는 원숭이가 자신의 강점인 나무타기에 더하여 하늘로 나는 훈련을 받고 있었다.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허공을 향해 몸을 던지며 나는 연습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불쌍하게도 원숭이는 땅바닥에 꼬꾸라지면서 온 몸은 상처투성이가 되어 피를 흘리고 있었다. 하지만 원숭이는 쉬지도 않고 나는 연습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연못에는 하늘의 제왕 독수리가 수영 연습을 하는 모습이 보였다. 독수리는 자신의 취약 부분인 수영 실력을 키우기 위해 어푸어푸 물을 마시며 연습에 몰두하고 있었다.

자,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자신의 강점을 버려둔 채 약점에 집중하는 것은 창조주의 뜻이 아니다. 소그룹 사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신자들은 자신들의 재능과 은사를 계발하고, 강점을 활용하여 사역에 임해야 한다.

## 아이스브레이커

우리 속담에 ‘뭇벙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가지고 있다. 그것이 타고난 재능일 수도 있고, 노력을 통해 얻은 기술일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일찍이 자기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계발함으로 성공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평생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아가기도 한다.

하나님께서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활용함으로써 후회 없는 그리스도인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재능과 은사에 대하여 충실한 청지기가 되기를 바라신다.

1. 어렸을 때부터 주로 무슨 일로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까? 그 칭찬 들은 일이 어떤 면에서 인생에 보탬이 되었습니까?


2. 남들보다 특별하게 잘하는 타고난 재능이나 기술 혹은 전공분야는 무엇입니까? 그 ‘나만의 강점’이 교회 생활에서 얼마나 활용되었다고 생각합니까?



- 피겨 퀸 김연아 선수나 축구 영웅 박지성 선수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강점을 개발하고 거기에 집중한 결과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었다.
- 우리도 우리 속에 잠자고 있는 재능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 소그룹 사역에 임한다는 것은 자신의 재능과 은사를 활용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 부록에 〈당신의 은사를 발견하라〉는 은사 테스트 설문지가 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은사를 발견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고, 제직 수련회와 같은 모임에서 워크숍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이 설문지는 달란트의 세 가지 영역 곧 1) 타고난 재능, 2) 습득한 기술, 3) 영적인 은사를 조사하는 것이다.

## 바이블 스터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두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계할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마 25:14~21)

 누군가에게 돈을 받고 물건을 팔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장사하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까?

---

---

---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에서 종들이 주인에게서 받은 달란트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리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하였다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

---

---

 나에게 있어서 충성해야 할 '작은 일'이란 무엇입니까?

---

---

---



- 달란트 : 구약시대에는 무게의 단위로 사용되었으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화폐 단위로 사용되었다. 무게로는 약 34.272kg이었고, 화폐 가치로는 약 6,000데나리온(드라크마)에 해당하였으나 실제로 주조된 화폐는 아니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8:21-35에서 빚진 두 사람, 즉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대비시키심으로 용서의 의미를 가르치셨다(청지기 성경사전, 277).
- 특별한 성령의 선물만이 비유에 나오는 달란트라고 할 수 없다. 이 달란트는 선천적이고, 후천적인 것에 관계없이 또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에 관계없이 모든 선물과 재능을 다 포함한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사용되어야 한다(실물교훈, 328).



## 소그룹 연구

### 1. 열정과 은사의 관계

자신이 은사를 받은 영역이 곧 사역의 분야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은사 분야는 열정 분야와 구분되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신이 열정을 느끼는 분야 또는 좋아하는 분야가 사역의 분야다. 그리고 자신이 은사를 받은 영역 또는 잘 하는 분야는 사역팀 안에서의 역할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 사역팀을 편성할 때는 열정별로 묶어야 하며, 그 사역팀 안에서의 역할은 은사를 따르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도표로 정리해 보자.

좋아하는 일	열정 분야	사역 분야(예 : 독거노인 사역팀)
잘 하는 일	은사 분야	사역에서의 역할(예 : 행정적인 역할)

가령, 독거노인들을 위한 봉사에 열정을 느끼는 사람이 일을 조직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은사를 받았다면, 그는 ‘독거노인 사역팀’에 소속되어 사무적이고 행정적인 일을 맡아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 2. 소그룹 매주 활동

실제로 소그룹 사역을 시작할 때 리더는 구성원들과 다음 사항들을 합의해야 한다. 사역팀의 비전은 무엇이며, 목표는 무엇인가? 그 일을 위해 얼마나 자주 모일 것이며, 언제 어디서 모일 것인가? 그리고 모여서 무엇을 할 것이며, 각자는 어떤 역할을 맡게 될 것인가?

가장 이상적인 소그룹 모임의 빈도는 매주 모이는 것이다. 형편에 따라 격주로 모이기도 하지만 안식일이 매주 돌아오듯 매주 정기적으로 활동을 할 때 사역의 열기가 식지 않는다.

## 1) 주말 활동

주말 활동이란 안식일에 펼쳐지는 활동으로서 안교활동반과 안교 교과반을 가리킨다. 안교활동반 시간에는 구성원들 간에 친교를 나누고 선교 계획을 수립하며, 안교 교과 시간에는 말씀연구를 통한 제자 훈련을 실시한다.

## 2) 주중 활동

주중 활동이란 각 소그룹별로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사역을 가리킨다. 각 소그룹은 구성원들이 함께 수립한 고유한 사역 전략을 실행한다.

## 3. 주중 활동의 사례

- 1) **채식요리 사역팀** : 채식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이 소그룹은 채식 요리를 통해 신자들의 식생활을 개선하고 지역 사람들에게 건강기별과 사랑을 나눈다는 비전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주중 활동을 할 수 있다. 화요일 오전 10시에 모 집사님 댁에 모여 새로운 채식 요리를 만들어 보고 시식회 겸 점심식사를 하고 헤어진다. 또는 함께 모여 '건강채식죽'을 끓여 주변에 있는 병원을 찾아가 필요한 환우들에게 나눠 준다.
- 2) **실버음악 사역팀** : 은퇴 노인들로 구성된 이 소그룹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교회 교육관에 모인다. 1교시는 음악이론 공부를 하고 2교시는 동요, 가곡, 성곡 등을 마음껏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 이웃의 노인들을 소그룹에 초청하여 함께 음악을 즐긴다.
- 3) **등산 사역팀** : 매주 일요일 오전에 모여 가까운 산에 함께 오른다. 아직 신앙하지 않는 가족과 이웃을 초청하고, 점심시간에는 준비한 도시락을 함께 먹으며 그리스도인 친교를 나눈다.



- 같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로 하나의 소그룹을 형성하면 은사 쓸림 현상이 일어난다. 가령 '가르침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끼리 한 그룹을 만들면 서로 가르치려고 하거나 남이 가르치는 것을 평가하려 할 것이다.
- 제4과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좋아하는 일'과 '잘 하는 일'은 서로 상반된 개념도 아니며 반드시 일치시켜야 되는 개인의 특성도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역'의 분야에서 자신이 '잘 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스럽게 충족시킬 수 있다.
- 첫 모임에서 합의할 일들
  - 소그룹의 비전은?
  - 소그룹의 목표는?
  - 모임의 빈도는?
  - 언제, 어디서 모이나?
  - 모여서 무엇을 하나?
  - 구성원 각자의 역할은?
- 매주 정규 활동은 주말 활동과 주중 활동으로 구분된다. 주말 활동은 안식일 오전에 교회에서 실시되는 안교활동반과 안교 교과반 시간이며, 주중 활동은 각 소그룹별로 주중 아무 날에나 실시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말 활동이 친교와 말씀연구 중심인 반면 주중 활동은 실제적인 사역 중심이라는 사실이다.
- 소개된 주중 활동의 사례들을 살펴보고 또 다른 어떤 활동들이 가능한지 함께 나누어 보자.
- 시간이 허락되면, '가정 사역팀'을 예로 들어서 주중 활동으로 어떤 사역을 실행할 수 있는지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의견을 모아보자.
  - 재림신도의 가정 읽고 나누기
  - 순회 가정방문 축복기도 하기
  - 불우한 이웃 방문하여 돕기
  - 불행한 가정 위한 중보기도
  - 일일 가사도우미 봉사하기(봉사 대상을 미리 선정함)
  - 공부방 꾸며주기(매월 1가정)
  - '가정 행복' 전도지 돌리기

## 적용을 위한 그룹활동

1. 리더로서 자신의 '열정 분야'와 '은사 분야'는 각각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은사로 소그룹을 얼마나 강력하게 이끌어 갈 수 있다고 판단됩니까?

---

---

2. 자신의 열정 분야에 따른 소그룹 사역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주중 활동의 내용을 정리해 보십시오. 정리한 내용을 발표하고 다른 리더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아보십시오.

---

---

〈열정 분야 :                     〉

1) 사역의 비전

---

---

2) 사역의 목표

---

---

3) 주중 활동 계획

---

---



- 평소애 사람들의 필요를 보며 부담을 느껴왔거나 열정을 품고 있었던 특정 봉사 분야들을 함께 나눈다.
- 비전은 사역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큰 그림을 말한다. 이 사역을 통해 누가 어떤 도움을 받게 될 것이며 그 결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지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는 것이다.
- 사역 목표는 기간별 혹은 단계별로 측정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
- 주중 활동 계획이란 비전과 사역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매주 정규 활동을 정하는 것이다. 리더가 혼자서 설정하기보다 구성원들과 함께 세우는 것이 좋다.

## 오프닝 스토리

1915년 1월, 새클턴과 27명의 대원들로 구성된 남극횡단 탐험대를 태운 인두어린스 호가 웨들해의 부빙(浮氷)들 사이에 꼼짝없이 갇히고 말았다. 그 후 10여 개월을 부빙 속에 갇혀 남극바다를 표류하다 결국 인두어린스 호는 엄청난 파괴력으로 죄어오는 부빙들의 압력을 견디다 못해, ‘인내’라는 뜻의 이름값을 다하지 못한 채 난파하고 만다. 새클턴과 27명의 대원들은 배에서 탈출해 부빙 위에 텐트를 치고 다시 5개월을 버텼다. 그 와중에 그들은 79일 동안 해가 없는 남극의 겨울 혹한을 견뎌냈고 식량이 바다나 물개기름으로 연명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세 척의 작은 보트에 텐트를 찢어 돛을 달아 또다시 차디 찬 남극바다에 배를 띄웠다. 추위, 배고픔, 향수, 그리고 무엇보다도 ‘절망’과의 처절한 싸움을 벌인 끝에 결국 그들은 영국을 떠난 지 75일 만에 모두 살아서 돌아왔다. 어네스트 새클턴 경은 포기하고 싶은 마음과 지독하게 싸운 끝에 극한의 상황 속에서 단 한 명의 대원도 잃지 않고 함께 살아 돌아왔던 것이다. 그의 리더십 포인트를 주목해 보자.

1. 궁극적인 목표를 잊지 말라
2. 리더가 솔선수범하라
3. 낙관과 자기 확신을 가지라
4. 다른 사람을 존중하라
5. 함께 웃을 일을 찾으라
6. 적극적으로 시도하라
7. 절대 포기하지 마라 (정진홍, 완벽에의 충동, 108-111)



- 어네스트 Shackleton(Ernest H. Shackleton)의 7가지 리더십 포인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무엇인지 리더들에게 물어보라. 그리고 소그룹 사역에 있어서도 '뚜렷한 목표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라.

## 아이스브레이커

상황 : 당신은 배의 선장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어마어마한 폭풍을 만나 배가 파선되고 말았습니다. 당신은 5명의 선원과 함께 가까스로 큰 널빤지를 붙잡고 탈출했는데,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꽤 큰 무인도가 하나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만약 파선된 배에서 단 3가지의 물건만 가져갈 수 있다면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다음의 목록에서 골라 보십시오. 그리고 왜 이 물건을 택했는지 이유를 말해 보십시오.

나침반, 지도, 거울, 알코올, 라이터, 담요, 노끈 멍치, 나이프, 손도끼, 선글라스, 물 2L가 든 병, 비상식량 1봉지, 소설책, 나팔, 구급약

1.

이유: .....

2.

이유: .....

3.

이유: .....



- 인원이 많으면 4명 내외로 그룹을 나누어 토의하게 한다.
- 리더로서 선장은 명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일단 무인도로 가서 기다리며 구조 요청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곳에서 뗏목을 만들어서라도 스스로 항해를 계속하여 목적지에 도달할 것인지...
- 거울은 지나가는 비행기나 배에 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 라이터 또한 불을 피워 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 도구이다.
- 정해진 답은 없다. 리더로서 자신의 판단력과 추진력 등 리더십을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적 실험이다.

## 바이블 스터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어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늑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막 4:35~41)

인생의 큰 시련을 겪고 있을 때 끝까지 용기를 잃지 않고 헤쳐 나갈 수 있게 했던 요인은 무엇이었습니다?




---



---





본문에서 예수님의 리더십이 돋보이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                 |                             |
|-----------------|-----------------------------|
| 1)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 | 2) 고물에서 베개 베고 주무심           |
| 3) 제자들에게 노를 맡기심 | 4)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심             |
| 5) 제자들의 불신 책망하심 | 6) 기타(                    ) |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합니까?

.....

.....



-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신 주님을 잊은 채 스스로 풍랑과 싸우고 있었다. 만일 그들이 주님을 잊지 않고 기억했다면 즉시 주님께 도움을 청했을 것이다.
- 소그룹 사역에서도 마찬가지다. 사역이 난관에 부딪칠 때 리더는 제일 먼저 주님을 기억해야 한다. 이 사역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매 순간 그분께 의지하자. 이 사역에 부르신 분도 주님이시요, 이끌고 계신 분도 그분이심을 굳게 믿자.

## 소그룹 연구

### 1. 리더십과 영향력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다양한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스토크딜(Stogdill, 1974)의 정의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리더십이란 집단의 목표달성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도록 구성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영향력’이다.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강압적인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비강압적인 방법이다. 강압적인 방법은 지위나 권력을 이용하여 위협하거나 벌을 내림으로 구성원들을 움직이는 것인데 소그룹 사역에

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비강압적인 방법은 높은 대의명분과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이기적인 이해관계를 희생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 2. 매주 활동과 연간 프로젝트

소그룹 사역에서 동기부여가 강력히 필요한 부분이 바로 '연간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이다. 물론 '매주 활동'에도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지만, 소그룹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실행하는 '연간 프로젝트'는 우리끼리 오붓하게 시간 보내기를 원하는 구성원들에겐 번거로운 일처럼 여겨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그룹별로 연간 1~4회 실시되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통하여 소그룹의 핵심적인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어, '채식요리 사역팀'의 경우라면 어떤 '연간 프로젝트'를 통해 외부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을까? 우선 쉽게 떠오르는 것은 '채식요리 교실'을 개최하는 것이다. 소그룹 구성원들 중에서 강사를 택하거나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할 수도 있다. '가정 사역팀'의 경우는 5월 경에 '부부행복 세미나'나 '자녀교육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여기서 특별한 점은 이런 프로젝트를 소그룹이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다는 것이다.

## 3. 선교 캘린더

각 소그룹마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갖게 될 때 같은 달에 행사가 몰리거나 날짜가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 주고, 연관된 소그룹들 간에 협력하도록 연결시켜주는 일을 목회부가 한다. 교회에서 행해지는 1년간의 모든 사역을 농사에 비유하면 봄부터 밭에 거름을 주고, 씨를 뿌리고, 김을 매는 과정은 소그룹별 '매주 활동'과 '연간 프로젝트'에 해당하고, 가을 전도회는 추수에 해당한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연례행사처럼 전도회를 개최하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씨도 뿌리지 않고 가꾸지도 않은 상태에서 추수만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요약하자면, 추수하는

전도회는 낯선 사람들을 초청하여 복음을 듣게 하는 기회가 아니라, 그동안 각 소그룹의 '매주 활동'과 '연간 프로젝트'를 통해 사귀어 온 사람들을 초청하여 결심하게 하는 기회인 것이다.

#### 4. 연쇄적 이벤트

교회성장학자 이클리(Yeakley)는 전도를 받은 사람의 반응에 따라 거절하는 자(rejects), 낙심하는 자(drop-outs), 회심하는 자(converts) 등 세 부류로 나누었다. 회심하는 자의 경우, 회심이 있기 전에 평균 8.6회 정도 자주 교회에 발을 들여 놓았다고 하였다. 각 소그룹이 연간 프로젝트를 실행할 때마다 평가 설문지(다음 페이지 참조)를 받고 그 다음 이벤트에 초대함으로 교회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게 하면 회심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 이 시간 함께 연구할 주제는 '연간 프로젝트'이다.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사역 부분이다.
- 강압적인 방법은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소그룹 사역에 어울리지 않는다. 비강압적인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확실한 동기부여가 있어야 하는데, 대의명분이 확실하고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면 누구나 즐겁게 동참할 것이다.
- 소그룹 사역에는 크게 두 부분이 있는데, '매주 활동(주말 활동 + 주중 활동)'과 '연간 프로젝트'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주지시킨다.
- '매주 활동'은 주로 소그룹 구성원들끼리 내부적으로 하는 활동인 반면에, '연간 프로젝트'는 소그룹 밖의 사람들을 위한 대외적인 행사이다.
- '실버음악 사역팀'은 연간 프로젝트로 연말에 '송년 실버 콘서트'를 개최할 수 있다.
- '독거노인 사역팀'은 연간 프로젝트로 5~6월 경에 '경로 잔치를 개최할 수 있다.
-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평가 설문지를 참조하라.
- 연속적인 세미나를 통한 전도법(Sequential Evangelism)은 마크 핀리(Mark Finley) 목사가 개발한 것으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들을 영적으로 이끄는 단계적 전도법이다.

• 선교 캘린더의 예

월	프로젝트
1	5일 금연학교
2	건강채식요리교실
3	가정경제 세미나
4	뉴스타트 건강세미나
5	부부행복/ 자녀교육세미나
6	독거노인 초청잔치
7	스트레스조절법 세미나
8	영어문화원 발표회
9	무료 진료 봉사
10	입시설명회/ 추수감사행사
11	전도회/ 환영회/ 체육대회
12	송년 실버 콘서트

## 적용을 위한 그룹활동

1. 자신의 소그룹이 실행할 수 있는 '연간 프로젝트'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해 보십시오. 정리한 내용을 발표하고 다른 리더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으십시오.

1) 연간 프로젝트 내용 : .....

2) 희망 횟수 및 일시 : .....

3) 준비할 사항 : .....

2. 각 소그룹 리더들의 연간 프로젝트를 취합하여 우리 교회 월별 선교 캘린더를 작성해 보시다. 조정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 평가 설문지(예)

1. 본 세미나에 참석하게 된 경위는?

1) 초청장 2) 신문광고 3) 현수막 4) 지인 소개 5) 기타

2. 본 세미나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숫자에 동그라미)

0 1 2 3 4 5 6 7 8 9 10

3. 다음에 참석하고 싶은 세미나에 모두 표시하십시오.

( ) 부부행복세미나      ( ) 가정경제세미나  
( ) 뉴스타트건강세미나      ( ) 건강채식요리교실  
( ) 스트레스세미나      ( ) 5일 금연교실

4. 이 름 \_\_\_\_\_ (남, 여) 전화번호 \_\_\_\_\_

이메일 \_\_\_\_\_



- 리더들로 하여금 자신의 소그룹에서 어떤 '연간 프로젝트'를 실시할지, 1년에 몇 번 실시할지, 준비할 사항은 무엇인지 생각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고 기록하게 하라.
- 리더들이 발표하는 동안 임시 서기가 월별로 칠판에 정리한 다음 중복되는 부분은 조정하고 서로 협력할 부분을 협의한다.
- 연속적 세미나 전도법의 장점은 구도자들로 하여금 자주 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하고, 세미나 혹은 워크숍을 통해 신자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세미나는 맞춤형으로 특성화되어 있고 소규모로 운영되기 때문에 참석자들로 하여금 동질감을 느끼게 한다. 물론 대형 전도회에 비해 비용도 훨씬 적게 든다.

# 소그룹과 양육 시스템

## 오프닝 스토리

코닥, 후지와 함께 세계 3대 필름 회사인 '아그파 필름'이 있다. 1936년 세계 최초로 컬러 필름을 개발한 독일 회사이다. 작곡가 멘델스존의 아들인 폴 멘델스존이 만든 회사이기도 하다. 그 회사는 2001년 최대 흑자를 기록하다가 2005년에 파산했다. 최대 실적에서 파산까지 4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다른 회사들은 디지털 형태로 변화하는데, 전통적인 필름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버리지 못하면 죽는다.

'노키아'라는 휴대폰 회사가 있다. 인구 500만인 핀란드의 수출의 5분의 1, 중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대형회사다. 그래서 핀란드를 가리켜 '노키아랜드'(Nokialand)라고 부르기까지 한다. 그런데 이 회사는 원래 제지회사였다. 고무와 목재를 다루는 30개의 계열사를 가진 재벌 그룹이었다. 그런데 요르마 올리라 회장이 취임한 이후에 휴대폰과 정보통신을 뺀 나머지 회사를 모두 정리해 버렸다. 120년 전통을 지켜야 포기한 것이다. 그렇게 버리니까 살아났다.(전병욱, 다시 시작하는 힘, 7-8)

한국 재림교회는 새로운 비상(飛上)을 위해 무엇을 과감히 버려야 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소중히 지켜야 하는가? 과거 어느 때보다 지금 이 질문들에 대한 진지한 답변이 요구되고 있다.



- 좋은 전통은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그것은 지켜져야 하고 계승되어야 마땅하다. 우리 교회에도 계승되어야 할 좋은 전통이 많다. 그런데 때때로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왜곡되어 버린 전통도 있는데, 그러한 것들까지 지키려고 하면 부흥과 개혁은 요원해진다.
-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좋은 전통까지 다 내버려도 안 되고, 안정이라는 미명 아래 안 좋은 전통까지 고수하려 해서도 안 된다.
- 소그룹 리더들은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교회의 부흥과 개혁을 위해 올바른 판단력과 결단력을 발휘해야 한다.

## 아이스브레이커

인간은 왜 타락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리하여 결국 인간이 고안해 낸 것은 다름 아닌 우상이었다. 인간이 우상을 만드는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다. 십계명에도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출 20:4)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는 엄격히 말해서 자아 숭배다. 구약시대에는 금송아지 같은 것을 우상으로 섬겼지만 오늘날에는 다양한 우상들을 숭배한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젊은 부자 법관 그분으로부터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들었다. 성경은 그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고 기록하였다. 그는 ‘재물’의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다.

인간이 다시 구원을 얻는 길은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자아를 부정하는 뜻으로 모든 우상을 버리는 길밖에 없다. 하나님을 본래의 자리에 모시는 수 밖에 없다.

1. 마음이 허전하고 불안할 때 하나님 대신 의지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2. '나만의 우상'을 버리기 전에는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우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우상숭배란 결국 자기 숭배라는 말에 공감하는가? 그리스도인들조차 현대의 다양한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까닭은 자아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 “만일 교만과 이기심만 버린다면 대부분의 문제들은 5분 내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초기문집, 119).
-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위기의 때에 재물을 의지하고, 인맥에 의존하며, 인간적인 방법을 따른다. 이때 하나님의 능력은 의심을 받는다. 하지만 생각해 보라. 인생길에서 가장 불안한 때야말로 가장 열렬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때가 아닌가?

## 바이블 스터디

“예수께서 이 열둘을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마 10:5~10)





‘교육’(教育)과 ‘훈련’(訓練)의 차이를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



---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방법 가운데 좀 특별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 1) 동족에게 먼저 보냈다
- 2) 지적 행할 능력을 주셨다.
- 3) 전대에 돈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셨다.
- 4) 의지할 만한 것들을 거부하게 하셨다.
- 5) 보수나 대가를 바라지 말라 하셨다.
- 6) 기타



지금까지의 소그룹 리더 훈련을 통해 어떤 면에서 자기 향상이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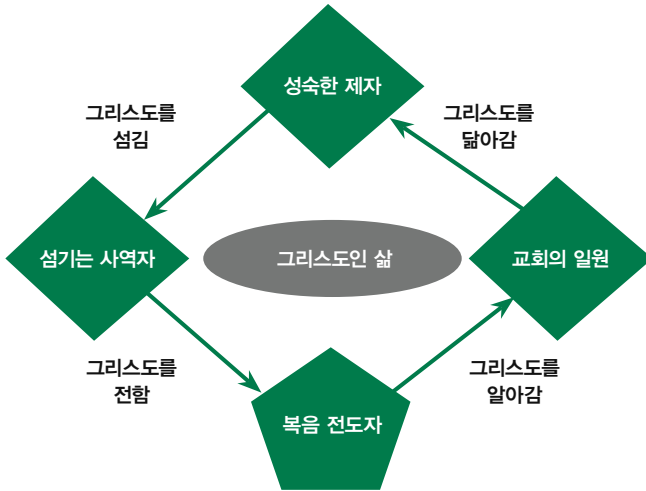
- 교육(education)은 지식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지적 작용이며, 훈련(training)은 기능이나 행동을 체득하기 위한 실천적 작용이다.
- 동질집단의 원리 : 예수께서 제자들을 동족에게 보내신 것은 전도자와 동질인 집단이 복음에 대해 더 수용적이기 때문이다.
- 누가 재림교회로 인도했나?

이웃, 친구	40%
목사	21%
친척	17%
공중전도	13%
삼육학교	9%
잡지	7%
라디오 / TV프로그램	7%
성경통신학교	2-3%
기타	2-3%

## 소그룹 연구

### 1. 양육 시스템의 필요성

리더는 팀원들이 현재의 위치에서 다음 단계로 향상하도록 돕는 영적 후견인이다. 다음 도식은 새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의 '야구 베이스 원리'를 수정하여 발전시킨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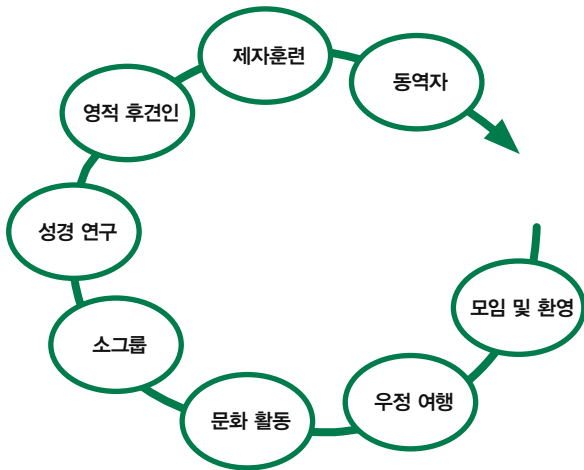
이 도식에서 우리 교회가 가장 잘 되고 있는 단계와 가장 안 되고 있는 단계는 무엇인가? 출루부터 쉽지 않다는 것을 직감할 것이다. 즉 구도자를 교인으로 흡수하는 과정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1루에서 2루로 진루하는 것은 더 어렵다. 2루에서 3루로, 3루에서 홈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점점 더 희박해진다. 그리스도인 성장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는 '양육 시스템'이 각 교회마다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 변화는 문제점을 인식하는 데서 시작된다.
- '야구 베이스 원리' 도식은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그리스도인 성숙의 단계를 4단계로 나누면 1) 교인, 2) 제자, 3) 사역자, 4) 전도자이다. 만약 어느 단계에 문제점이 발견 되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집중할 수 있다. 가령, 1루로 출루하는 일, 즉 구도자를 교인으로 만드는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디에 허점이 있는지 찾아 해결해야 한다. 2루로 나아가는 일, 즉 제자훈련이 잘 안 된다면 그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해결해야 한다.
- 우선 1루로 출루시키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자. 해마다 연례행사로 전도회를 하지만 결과가 없다면 그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

## 2. 새 신자 흡수 과정

지난 과에 '연간 프로젝트'에 대해서 공부했다. 소그룹별로 펼치는 이 '프로젝트'들은 대외적인 행사로서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대단히 중요한 통로가 된다. 다양하고 연속적인 세미나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교회와의 접촉 빈도가 높아질수록 점점 더 영적인 사물에 관심을 갖게 된다. 다음 도식은 게이트웨이 교회 조니 왕 장로의 '폐쇄회로 원리'를 한국 재림교회에 맞게 응용한 것이다.



### 3. 새 가족 환영회

영혼을 수확하는 이벤트인 '전도회'가 끝나고, 결심한 이들을 초청하여 따뜻한 환영회를 갖는 것은 전도회 못지않게 중요하다. 새 가족 환영회는 새로운 영혼이 교우들과 더욱 친근해질 수 있는 기회이자 각 소그룹과 연결되는 중요한 '뒷수습'(follow-up) 과정이므로 포근하면서도 품격 있게 준비되어야 한다. 테이블 세팅과 데코레이션, 식사와 레크레이션, 그리고 봉사자의 복장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쓸 것들이 많다.

### 4. 제자훈련, 사역훈련, 전도훈련

야구 베이스 도식에서 1루에 머물다가 '아웃'되는 신자들이 많은 까닭은 제자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제자훈련, 사역훈련, 전도훈련이 차례대로 이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양육 시스템을 따라서 향상해 가는 것이 교회 생활의 즐거움이 되어야 한다.



- 전도회의 결과가 미미한 원인 중 첫째는 씨를 뿌리지 않고 가꾸지도 않으면서 추수하려 하기 때문이다. 앞에서 본 바대로 각 소그룹별 연간 프로젝트들을 통해 자주 교회에 발을 들여 놓음으로 교인들과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확보하고 그들을 전도회에 초청해야 한다. 둘째는 전도회의 뒷수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과가 미미하다. 그들을 흡수하기 위한 세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전도회 결심자들을 환영하고 그들과 우정을 맺는 활동이 이어져야 한다. 왼쪽의 도식을 유심히 관찰하고 숙지하라.
- 새 가족 환영회 순서(예)  
환영 → 식사 → 소개 → 특창 → 간증 → 레크리에이션 → 교회 사역 소개 → 축도 → 기념촬영
- 한국 재림교회 새 신자 정착률은 30% 미만이다. 10명이 침례를 받으면 그중 7명 이상이 낙심자로 떠나간다는 것이다. 제자훈련이 시급하다. 제자를 사역자로, 사역자를 전도자로 계속 양육시켜 나가야 한다.

## 적용을 위한 그룹활동

1. 우리 교회는 구도자를 교인으로 흡수하는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가동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만약 문제점이 있다면 어디를 어떻게 보완해야 할까요?

---

---

2. 우리 교회는 새 신자 정착률 혹은 잔존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

---

3. 우리 교회에는 교인, 제자, 사역자, 전도자의 비율이 각각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 1루 : 교인(   %)                      • 2루 : 제자(   %)
- 3루 : 사역자(   %)                  • 홈 : 전도자(   %)

4. 야구 베이스 원리에 대입해 볼 때, 우리 교회는 어느 부분에서 가장 적체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

---



- 구도자의 교회 첫 방문 혹은 새 가족 환영회 이후에 가동될 '흡수 시스템'의 핵심 과정
  - ① 교회와의 접촉점 파악
  - ② 연락처 등個人資料 수집
  - ③ 영적성숙도에 따른 분류
  - ④ 관심사, 의문점 등 추가정보
  - ⑤ 접촉(전화, 편지, 이메일)
  - ⑥ 희망하는 사역팀에 연결
  - ⑦ 사역팀 리더의 접촉
  - ⑧ 사역팀원들의 환영
  - ⑨ 사귀기 및 후속 관리
- 사귀을 위한 팁(tip)들
  - 함께 식사하기
  - 함께 쇼핑하기
  - 함께 여행하기
  - 각종 문화행사(음악회, 연극, 전시회, 각종 공연)
  - 각종 스포츠(산책, 하이킹, 볼링, 수영, 배드민턴, 테니스)

## 오프닝 스토리

‘코이(Koi)’라는 물고기가 있다. ‘코이’는 일본 사람들이 관상용으로 키우는 비단잉어다. 빨간 무늬에 흰 반점이 있는 비단잉어 ‘코이’는 작은 어항에 가두어 키우면 3~5cm 정도 자라지만, 수족관이나 연못에 놓아 키우면 15~20cm로 자라는 특성이 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코이’를 강물에 방류하면 무려 90~120cm까지 자란다는 것이다. ‘코이’는 자기가 생활하는 환경에 따라 피라미가 될 수도 있고 대어(大漁)가 될 수도 있다. 우리의 소그룹 사역도 ‘코이’와 비슷한 데가 있다. 환경만 잘 조성된다면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소그룹의 성장 환경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리더가 가진 꿈의 크기가 아닐까? 리더가 소그룹에 대하여 큰 꿈을 꾸고 있다면 그 소그룹은 한계를 모르고 성장할 것이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막 9:23)



- 인터넷에서 ‘코이’ 사진을 프린트하여 리더들에게 보여 주면 더 인상적일 것이다.
- 리더는 소그룹 사역에 대한 큰 비전을 가져야 하고, 성장 의지를 품어야 한다는 것을 힘있게 강조한다.

## 아이스브레이커

지난 약 3개월 동안 소그룹 리더 훈련에 참가하면서 교회의 목적과 사역의 의미를 배웠고, 소그룹의 중요성과 리더의 역할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다. 개인의 신앙관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함께 기뻐하고 축하할 일이다.

소그룹 리더 훈련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실제 소그룹을 운영하면서 계속 기술을 연마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소그룹이 커져서 분가를 하고, 분가된 소그룹을 이끌어 갈 또 다른 리더를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1. 소그룹 리더 훈련을 통해 영성적인 면, 지식적인 면, 기술적인 면에서 각각 얼마나 성장했다고 생각합니까?

2. 더 훌륭한 리더로 거듭나기 위해 자신에게 보완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3. 만일 자신이 '견습 리더'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자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겠습니까?



- 제한 시간 : 15분
- 소그룹 리더 훈련 학교의 마지막 과를 시작하면서 지난 약 3개월 동안 개인적으로 어떤 변화와 성장을 경험했는지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 코치가 본 교재의 목차를 읽어 나가면서 간단히 복습을 해주는 것도 좋다.
- 인원이 많으면 4명 정도씩 그룹들로 나누어 각 질문들에 대해 나누도록 한다.

## 바이블 스터디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마 13:31~35)



겨자씨를 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작은 씨앗입니까? 그리고 그 작은 겨자 씨는 얼마나 큰 나무로 자랄 수 있을까요?

---



---



본문에 나오는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의 공통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



이 두 비유의 교훈을 소그룹 사역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



---



- 제한 시간 : 10분
- 겨자씨는 참깨보다 훨씬 작은, 먼지처럼 미미한 씨앗이지만 그것은 나무가 되어 2m 이상 자란다.
- 두 비유의 몇 가지 공통점
  - 처음에는 미미하다.
  - 소리 없이 커진다.
  - 적절한 환경이 필요하다.
- 생명력을 가진 소그룹은 조건만 맞으면 놀랍게 성장한다. 성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람이 바로 리더다.

## 소그룹 연구

### 1. 열린 마음과 열린 소그룹

소그룹은 비밀결사처럼 폐쇄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회원들은 소그룹 공동체의 행복한 경험을 외부 사람들과 공유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태도는 성장을 방해한다.

처음부터 새로운 소그룹 탄생을 목표로 하고, 소그룹을 확대해 나가는 '열린 소그룹'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구도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마음과 환영하는 따뜻한 분위기, 그리고 부드럽고 사려 깊은 대화가 있다.

리더는 구도자들의 참석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회원들을 훈련시켜야 한다. 잃어버린 영혼이 소그룹에 참석할 때 맞이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새로운 구도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구체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새로운 구도자들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때때로 민망한 말이나 행동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것까지도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 2. 분반의 시기

증식하지 않는 세포는 결국 죽는다. 이것은 생물학에서도 사실이고, 소그룹에서도 사실이다. 배가하지 않는 소그룹은 결국 죽는다. 소그룹의 배가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다.

소그룹이 배가하는 데는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 열심히 활동하면 1년 안에 배가할 수 있다. 리더는 성장 의지를 가지고 배가 시기를 미리 정하는 것이 좋다. 산모가 출산 예정일을 알듯이 계획을 세우고 활동하는 것이 좋다.

소그룹의 크기는 1)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작아야 하고, 2) 사역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커야 하는데, 소그룹의 적정 크기는 4~8명이다. 인원이 너무 적으면 사역 역량이 약화되고, 너무 많으면 친밀감이 깨어진다. 분반을 고

려할 적절한 시점은 반원이 8명 되었을 때이며, 12명 내외가 되면 나눠야 한다.

### 3. 견습 리더의 발굴과 훈련

분반을 위한 조건으로 반원수의 증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견습 리더'의 양성이 다. 이 예비 리더가 준비되기 전에는 분반을 해서는 안 된다. 견습 리더를 세울 책임은 리더에게 있는데, 그 선택이 빠를수록 좋다. 리더는 견습 리더를 선택하기 전에 기도를 많이 드려야 한다. 견습 리더 발굴을 위한 4단계는 다음과 같다.

- 1) 발견하라
- 2) 위임하라
- 3) 훈련하라
- 4) 파송하라

리더는 견습 리더가 될 만한 사람을 유심히 관찰하여 잠재력을 발견해야 한다. 은사 테스트를 통해 재확인할 수 있다. 그런 다음에 안교활동반이나 교과토의를 인도하도록 일을 맡겨 볼 수 있다. 견습 리더로 선발되면 본 훈련 과정을 거쳐 새로운 반으로 파송된다.

### 4. 분반의 과정

분반을 위한 과정은 먼저 'D-day'를 정하고, 약 3주 전부터 공개적으로 분반을 거론하면서 견습 리더가 공개적으로 반을 이끌 기회를 제공한다. 2주 전에는 분반 명단을 확정한다. D-day에는 1개의 케이크와 2개의 초를 준비한다. 하나의 초에 불을 밝히고 그것으로 다른 하나의 초에 붙이는 의식을 거행한다. 이때 리더는 견습 리더에게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한다. 기도 후에 각각 다른 방에서 모임을 갖는다. 이제 나누어진 소그룹이 각각 다음 주 계획을 세운다. 그로부터 1개월 후와 2개월 후에 두 반이 함께 모이는 기회를 갖는다.



- 열린 자리(open chair) 규칙 : 새로운 구도자에 대한 전폭적인 포용적 자세를 갖기 위한 장치이다. 소그룹 모임 시에 가시적 혹은 비가시적 '열린 자리'를 마련함으로 모든 반원이 그 '열린 자리'가 채워지기를 기도하도록 이끌어 준다. 마침내 새로운 반원이 들어왔을 때는 모든 반원들이 마치 새로 태어난 아기를 기뻐하듯이 진심으로 그를 환영해 주어야 한다.
- 따뜻하고 부드럽고 환영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리더의 능력 중 하나다.
- 중식하지 않는 세포는 결국 죽듯이 확장되지 않는 소그룹도 죽는다는 사실을 강조하라.
- 여건과 노력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1년이면 충분히 소그룹이 배가될 수 있다.
- 반원이 8명으로 늘어나면 반드시 견습 리더를 세우고, 12명이 넘으면 분반하여야 한다.
- 분반을 위한 2가지 조건
  - 1) 견습 리더의 양성    2) 반원수의 증가
- 견습 리더 선택의 기준
  - 1)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자    2) 리더십 은사를 가진 자
  - 3) 소명감이 있는 자            4) 리더훈련 과정을 따를 자
- 분반을 위한 일정표
  - 1) 분반 1~3주 전
    - 분반 D-day 설정            - 분반의 중요성 설명            - 견습 리더 정식 임명
    - 반별 명단 확정
  - 2) 분반 당일
    - 촛불 분화, 축복 기도        - 다른 방에 나뉘어 모임
  - 3) 분반 4주, 8주 후
    - 두 차례 연합 모임 가짐

## 적용을 위한 그룹활동

1. 반원들은 대체로 소그룹 공동체의 행복한 경험을 외부 사람들과 공유하기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새로운 구도자들에 대해 포용적인 태도를 갖게 할 수 있을까요?

---



---

2. 견습 리더는 리더와의 많은 대화를 통해 비전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만, 사역에 대한 소명감과 열정은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

---

3. 분반은 아쉬운 시간이면서 동시에 경사스러운 기회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쉬움보다는 경축의 분위기로 이끌 수 있을까요?

---

---



- 소그룹 첫 모임부터 '열린 자리'를 마련하고 새로운 소그룹 탄생을 목표로 정하고, 구도자를 향해 포용적인 태도를 갖도록 강조하는 것이 좋다.
- 소명과 열정은 주입할 수 없다. 속에서부터 우리나라와야 한다. 테크닉이 없으면 배우면 되지만, 열정이 없으면 사역을 이끌기 어렵다. 견습 리더에게 소명과 열정은 매우 중요하다.
- 담임 목사나 교회 지도자가 참석하여 축하해 주고, 안식일학교 시간에 전체 앞에서 분반 보고를 하게 함으로 성취한 결과를 나눌 수 있게 한다.

# 당신의 은사를 발견하라!

## 1. 교회는 사역 공동체이다.

갈 5:13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 집사, 장로, 목사 등은 직분이며, 사역이 아니다.
- 사역이란 봉사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 및 활동 분야를 말한다.  
(사역의 예 : 가정 사역, 기도 사역, 새 신자 양육, 환우 방문 선교, 무료급식 사역, 찬양 사역 등)

## 2.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2가지 목적

- (1) 은사를 활용하는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 (2) 은사를 활용하는 사역을 통해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함이다.

### • 십계명(출 20:1~17)

- 처음 네 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말해 준다.
- 나머지 여섯 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것인가를 말해 준다.

### • 대강령(마 22:37~40)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 3. 교회는 은사 공동체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벧전 4:10)

“그 모든 선물이 모든 신자에게 다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성령께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고전 12:11) 주신다. 그러나 성령의 선물은 주의 사업을 위한 각자의 필요에 따라 모든 신자에게 약속되어 있다.”(시대의 소망, 823)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고전 12:8~11)

교회가 은사 공동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다음의 사실들을 기억하자.

- (1)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한 가지 이상의 은사가 주어졌다.
- (2) 모든 은사를 전부 다 소유한 사람은 없다.
- (3) 모든 신자가 다 같은 은사를 받은 것도 아니다.
- (4) 하나님께서는 성도 개개인에게 은사 활용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셨다.
- (5)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어졌다.
- (6) 우리는 은사에 따라 사역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섬길 수 있다.
- (7) 은사를 활용하여 교회를 섬길 때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을 맛보게 된다.



#### 4. 영적 은사란 무엇인가?

은사는 하나님께서 각 신자의 삶에 부여하신 특별한 속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도록 허락하신 고유한 능력을 말한다. 신자는 이 은사를 활용함으로 하나님이 위탁하신 선교적 사명을 효과적으로 완수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사역을 맡기실 때에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부여하시기 때문이다. 이 은사의 범주에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능, 후천적으로 개발한 기술, 그리고 신자가 영적으로 거듭날 때 부여받은 영적인 은사가 포함된다. 이 모든 것은 개인의 일시적인 유익을 위해 허락된 것이 아니다. 이 은사의 목적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다.(엡 4:12)

엘렌 G. 화잇 여사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특별한 성령의 선물만이 비유에 나오는 달란트라고 할 수 없다. 이 달란트는 선천적 이고, 후천적 인 것에 관계없이 또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에 관계없이 모든 선물과 재능을 다 포함한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사용되어야 한다.”(실물교훈, 328)

이 글에 의하면, 달란트에는 4가지 영역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A. 선천적이고 육적인 영역 : 육체적 민첩성, 관계 능력, 인식적 능력 등
- B. 선천적이고 영적인 영역 : 제사장직, 나실인 등 혈통 및 서원에 의한 것
- C. 후천적이고 육적인 영역 : 전문적 기술, 운동관련 기술, 일반 지도력 등
- D. 후천적이고 영적인 영역 : 영적 리더십, 교사 등 대부분의 영적 은사들

	육적	영적
선천적	A	B
후천적	C	D

영적 은사 분야에 탁월한 전문가인 로버트 클린턴은 “사역은 존재로부터 흘러나온다.”(Ministry flows out of being.)고 말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사역의 원천으로서, 삶의 모든 국면이 다 사역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자의 삶에서 모든 경험(사건, 만남, 시행착오 등)과 지식(학습, 독서, 사색 등)은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

클린턴은 은사(giftedness)를 크게 3가지 영역으로 구분했는데,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구분과 크게 다르지 않다.

- (1) 타고난 재능(natural ability) : 창의적 재능, 인식적 능력, 육체적 민첩성, 관계적 능력
- (2) 습득한 기술(acquired skills) : 창의적 기술, 전문적 기술, 운동관련 기술, 일반적인 지도력, 전문적 지도력, 목회사역 지도력, 의사소통 기술 등
- (3) 영적인 은사(spiritual gifts) : 신약에 기록된 20가지 영적 은사

## 5. 나의 강점으로 봉사하라.

클린턴은 성경에 나오는 20가지의 영적인 은사를 다섯 꾸러미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 (1) 가르침 은사 꾸러미 : 가르침, 지식, 지혜, 목양
- (2) 지원적 은사 꾸러미 : 조력, 자비, 권면, 대접, 구제
- (3) 리더십 은사 꾸러미 : 지도력, 행정, 믿음
- (4) 전도의 은사 꾸러미 : 전도, 개척, 방언, 통역
- (5) 능력의 은사 꾸러미 : 예언, 능력, 분별, 치유

## 6. 열정과 스타일

나는 어떤 분야에 열정을 느끼는가? 내가 자신 있게 잘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 두 질문은 은사 활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 그것은 나의 사역 분야와 그 사역 분야 내에서의 나의 역할을 말해주는 때문이다.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활용하여 섬길 때 가장 효과적인 봉사를 할 수 있다.

- **열정**은 어디서 일할 것인가를 말해 주고, **은사**는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말해 주며, **스타일**은 어떻게 일할 것인가를 말해 준다.

▶ 나는 어떤 분야에 열정을 느끼는가?(출처 : 빌 하이벨스의 **네트워크 사역**)

〈가장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				
유아	어린이	청소년	미혼모	홀부모
대학생	이혼자들	유족들	독신자	직장인
신혼부부	노숙자	부모들	극빈자	외국인 근로자
실직자	노인	장애인	수감자	농어촌 사람들
환자	군인	기타( )		

〈내가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들〉				
환경오염	낙태 문제	교회	에이즈 문제	정치 문제
제지훈련	폭력	사회보장	인종차별	교육
중독	국제 문제	경제와 재정	전도	기술
의료혜택	빈곤과 기아	가정	문맹퇴치	탁아 문제
기타( )				

▶ 내가 일하는 스타일은?

<b>일 중심</b> (업무에서 힘을 얻음)						
<b>체계적</b> (계획, 지속)	<table border="1" style="margin: auto;"> <tr> <td style="width: 50px; height: 30px;">A</td> <td style="width: 50px; height: 30px;">B</td> </tr> <tr> <td style="width: 50px; height: 30px;">C</td> <td style="width: 50px; height: 30px;">D</td> </tr> </table>	A	B	C	D	<b>비체계적</b> (자발, 포괄)
A	B					
C	D					
<b>사람 중심</b> (교제에서 힘을 얻음)		예) 휴가를 보낼 때 계획을 따르는가, 즉흥적인가?				

## 7. 성경에 기록된 20가지 영적 은사들

영적 은사에 대해 언급한 성경절	은사
<p><b>* 고전 12:8~10</b></p> <p>“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b>지혜</b>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b>지식</b>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b>병 고치는 은사</b>를, 어떤 이에게는 <b>능력 행함</b>을, 어떤 이에게는 <b>예언함</b>을, 어떤 이에게는 <b>영들 분별함</b>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b>방언 말함</b>을, 어떤 이에게는 <b>방언들 통역함</b>을 주시나니”</p> <p>[해설 : 이 본문에서 ‘병 고치는 은사’는 육체적, 정신적 병을 포함한다. 그리고 ‘영들 분별함’이란 영적인 분별력(spiritual discernment)을 의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지혜</u></li> <li>2. <u>지식</u></li> <li>3. <u>믿음</u></li> <li>4. <u>병고침</u></li> <li>5. <u>능력 행함</u></li> <li>6. <u>예언</u></li> <li>7. <u>영 분별</u></li> <li>8. <u>방언</u></li> <li>9. <u>방언 통역</u></li> </ol>
<p><b>* 고전 12:28</b></p> <p>“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b>사도</b>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b>교사</b>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b>돕는 것</b>과 <b>다스리는 것</b>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다.”</p> <p>[해설 : 본문의 ‘선지자’는 고전 12:10의 ‘예언함’과 같은 은사이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 <u>사도</u></li> <li>11. <u>교사</u></li> <li>12. <u>조력</u></li> <li>13. <u>행정</u></li> </ol>
<p><b>* 롬 12:6~8</b></p> <p>“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b>권위하는 자</b>면 권위하는 일로, <b>구제하는 자</b>는 성실함으로, <b>다스리는 자</b>는 부지런함으로, <b>공흠을 베푸는 자</b>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p> <p>[해설 : 이 본문에서 ‘섬기는 일’은 고전 12:28의 ‘돕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다스리는 자’(He who leads)는 고전 12:28의 ‘다스리는 것’(administration)과 다르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4. <u>권면</u></li> <li>15. <u>구제</u></li> <li>16. <u>지도력</u></li> <li>17. <u>공흠</u></li> </ol>

<p><b>* 엡 4:11, 12</b></p> <p>“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b>복음 전하는 자로</b>, 혹은 <b>목사와 교사로</b>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p>	<p>18. <u>전도</u></p> <p>19. <u>목양</u></p>
<p><b>* 벰전 4:9 10</b></p> <p>“서로 <b>대접</b>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 의 <b>각양</b>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p>	<p>20. <u>대접</u></p>

## 8. 각 은사의 정의

각 은사를 설명하는 정의를 오른쪽 칸에서 찾아 연결해 보세요.

은사		정의
가 르 침  은 사	1. 가르침 ( B ) (Teaching)	A. 영적인 진리를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하며 특정한 상황의 필요를 채우도록 하나님 께서 부여하신 은사다.
	2. 지식 ( D ) (Knowledge)	B. 오랜 묵상과 연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명확히 설명하고 적용하며,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말씀에 순종하게 만든다.
	3. 지혜 ( A ) (Wisdom)	C. 다른 이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은사를 발휘하도록 자신의 능력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 돕는 것을 기뻐한다.
	4. 목양(목사) ( E ) (Shepherding)	D.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에 진리를 알리기 위하여 비상한 통찰력을 가지고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정보를 통합하고 정리한다.

지 원 적 은 사	5. 조력(섬김) ( C ) (Supporting)	E. 사람들이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양육하고 돌보며 인도하고 이끌어 주는 역할을 잘 한다.
	6. 자비( 긍휼 ) ( F ) (Compassion)	F. 고통당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며 그들의 아픔과 불편을 제거하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보살핀다.
	7. 권면( 권위 ) ( I ) (Exhortation)	G. 좀 더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친교를 나누고 사람들을 보살필 수 있도록 속식을 제공한다.
	8. 대접 ( G ) (Hospitality)	H. 하나님의 사역에 필요한 돈과 자원과 물질을 기쁜 마음으로 후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은사이다.
	9. 구제 ( H ) (Giving)	I. 믿음이 흔들리거나 낙심하는 이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여 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행동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리 더 십 은 사	10. 지도력 ( L ) (Leading)	J. 교회가 움직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이해하고 사역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계획과 방안을 모색하는 능력이다.
	11. 행정 ( J ) (Administration)	K.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확신하는 가운데 그분의 언약과 섭리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행동한다.
	12. 믿음 ( K ) (Faith)	L.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하나님의 뜻에 조화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이다.

전 도 의  은 사	13. 전도 ( N ) (Evangelism)	M. 자신이 배웠거나 혹은 배우지 않은 외국어를 말함 으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능력 있 게 복음을 전파한다.
	14. 개척(사도) ( O ) (Pioneering)	N. 불신자들에게 쉽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효과 적으로 전달하고 그들로 하여금 제자의 삶을 살도 록 이끌어 준다.
	15. 방언 ( M ) (Tongues)	O. 새로운 사역을 만들어내고, 담대한 마음으로 다른 문화권에 접근하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권 위 있게 증거한다.
	16. 통역 ( P ) (Interpretation)	P. 자신이 배웠거나 혹은 배우지 않은 외국어를 통역 함으로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돕는 은사 이다.
하 력 의  은 사	17. 예언 ( S ) (Prophecy)	Q.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나타내는 은사 이다.
	18. 능력 ( Q ) (Miracles)	R.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능력과 지혜를 통해 육체적 및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하 나님의 도구가 된다.
	19. 영 분별 ( T ) (Discernment)	S.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계시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계 몽과 경고와 훈육의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미래를 말하는 은사이다.
	20. 치유(병고침) ( R ) (Healing)	T. 진실과 거짓을 드러내고 동기의 순수함과 불순함을 밝혀내며 성경의 진리와 일치하지 않은 기별을 가려 낸다.

## 9. '능력의 은사'에 대한 재림교회의 입장

### (1) 재림교회 기본 교리

재림교회는 소위 능력의 은사(Charismatic Gifts)로 불리는 예언, 능력, 영 분별, 병 고침의 은사 등이 사도 시대 이후 오늘날까지도 유효하다는 것을 믿는다.

“하나님께서서는 각 시대를 통하여 당신의 교회의 모든 교인들에게 영적 은사를 주사 교인 각자가 교회와 인류의 공동 유익을 위한 사랑의 봉사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셨다. 이 은사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분의 뜻대로 각 교인에게 나누어 주어졌으며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임무들을 수행하는 데 교회가 필요로 하는 모든 재능과 봉사의 직무들을 공급해 준다. 성경에 의하면, 이런 은사들에는 믿음, 병 고치는 일, 예언하는 일, 복음전도, 가르치는 일, 다스리는 일, 화목시키는 일, 동정을 베푸는 일, 백성들을 도와주고 격려하기 위한 자기 희생적 봉사와 사랑 등이 포함된다.”(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기본교리, 2007년, 293)

### (2) 역사적으로 능력의 은사가 활발하던 시대

역사적 시기	이적과 기사
모세와 여호수아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엘리아와 엘리사	분열왕국 시대의 부흥과 개혁
예수님과 사도들	메시아의 강림과 인류의 구속

### (3) 늦은비 성령과 능력의 은사들

“위대한 복음의 사업은 그 시초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 못지않은 큰 능력이 나타남으로 마쳐지게 될 것이다. 복음 사업의 시초에 이른비가 내림



으로 성취된 예언들은 그 사업의 종말에 늦은비가 내림으로 다시 성취될 것이다.”(각 시대의 대쟁투, 61)

“세상의 추수의 끝이 가까울 때에, 인자의 오심을 맞기 위해 교회를 준비시키고자 하시는 영적인 은혜의 특별한 부어 주심이 약속되어 있다. 이러한 성령의 부어 주심은 늦은비가 내리는 것으로 비유되었다.”(사도행적, 55)

“하나님의 종들은 거룩한 헌신으로 빛나고 밝은 표정을 얼굴에 짓고, 하늘에서 온 기별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곳에서 저곳으로 분주히 왕래할 것이다. 온 세상은 무수한 음성으로 경고를 받을 것이다. 이적들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될 것이며, 표적과 기사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따를 것이다.”(각 시대의 대쟁투, 612)

#### **(4) 사단은 언제나 진짜와 흡사한 모조품을 내놓는다.**

오늘날 대부분의 개신교회와 천주교회에 퍼져 있는 방언 현상이나, 병 고치는 일들은 주의하여 보아야 한다. 방언의 목적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인데,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오늘날의 이상한 지껄임의 현상을 바라보는 비신자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 **10. 영적 은사의 활용**

“학식과 달란트와 웅변과 선천적 또는 후천적 재능을 다 가졌다 해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한 사람의 마음도 감동시킬 수 없고 단 한 명의 죄인도 그리스도를 믿게 할 수 없다. 이와 반면에 만일 저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의 선물을 갖게 된다면 아무리 가련하고 무식한 제자일지라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실물교훈, 328)

사랑으로 하는 봉사와 의무감에서 하는 봉사는 전혀 다른 것이다. 사랑은 인체의 각 부분이 통일된 행동을 하게 하는 신경에 비유될 수 있다. 사랑의 은사는 다른 은사들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게 하는 촉매제이다. 사랑이 없으면 어떤 은사를 활용해 봉사를 하여도 무의미해진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팽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전 13:1~3)

# 당신의 은사를 발견하라

- 은사 발견 설문지 -

(※ 로버트 클린턴의 <당신의 은사를 계발하라>와 여러 은사 설문지를 통합, 발전시킨 것임)

## 1. 타고난 재능(natural ability)

각 항목을 읽고 전혀 맞지 않을 때는 0, 항상 맞을 때는 10을 기준으로 하여 숫자 0~10 중에서 적당한 점수를 부여하십시오.

분야	항목	점수
창의적 재능	나는 암기 능력이 있는 편이다.	
	나는 도안, 디자인 등에 <b>창의적 아이디어</b> 가 있는 편이다.	
	<b>드라마</b> 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	
	작곡 또는 <b>음악 창작</b> 에 소질이 있다.	
	음악적인 <b>귀와 목소리</b> 를 가지고 있다.	
기타 :		
인식적 능력	나는 <b>성취욕</b> 이 강하며 경쟁적인 편이다.	
	<b>호기심</b> 이 많고 공부하는 것이 즐겁다.	
	나는 <b>탁월함</b> 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b>전략적 사고</b> 와 계획을 잘 하는 편이다.	
	스스로 동기부여를 잘하고 <b>자기 주도적</b> 인 편이다.	
기타 :		
육체적 민첩성	나는 <b>개인 운동</b> 을 잘 한다.	
	나는 <b>단체 운동</b> 을 잘 한다.	
	나는 율동과 같은 <b>몸동작</b> 을 잘 한다.	
	손으로 하는 <b>수공예</b> 에 소질이 있다.	
	<b>체력</b> 이 좋고 지구력이 강하다.	
기타 :		

<b>관계적 능력</b>	나는 친구 사귀기가 쉽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b>팀워크</b> 를 잘 이루는 편이다.	
	나는 개인이나 대중 앞에서 말하는 <b>언어 능력</b> 이 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b>동기부여</b> 를 잘 한다.	
	이벤트를 계획하고 사람들을 <b>조직</b> 하는 일을 잘 한다.	
	기타 :	

타고난 재능들 중 점수가 가장 높은 항목 5개를 고르시오.(예 : 호기심 = 9점)

1. \_\_\_\_\_ = \_\_\_\_\_ 점

2. \_\_\_\_\_ = \_\_\_\_\_ 점

3. \_\_\_\_\_ = \_\_\_\_\_ 점

4. \_\_\_\_\_ = \_\_\_\_\_ 점

5. \_\_\_\_\_ = \_\_\_\_\_ 점

## 2. 습득한 기술(acquired skills)

각 항목을 읽고 전혀 맞지 않을 때는 0, 항상 맞을 때는 10을 기준으로, 숫자 0~10 중에서 적당한 점수를 부여하십시오. 본 설문지에 기록된 기술들과 지도력들은 교회활동에 흔히 사용되는 대표적인 몇 가지 기술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자신이 습득한 특별한 기술 가운데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기타 난에 적고 점수를 부여하십시오.

분야	항목	점수
창의적 기술	나는 미술, 디자인, 제도 등 <b>그리기</b> 를 잘 한다.	
	도안, 레이아웃, 합성사진 등 <b>컴퓨터 그래픽</b> 을 잘한다.	
	연극 또는 드라마에서 <b>연기</b> 할 수 있다.	
	드라마나 연극의 <b>시나리오</b> 를 쓸 수 있다.	
	<b>기악 또는 성악</b> 에 소질이 있다.	
기타 :		
전문적 기술	나는 <b>회계학</b> 의 기능이 있다.	
	나는 <b>커리큘럼 개발</b> 을 할 줄 안다.	
	나는 <b>마케팅 분야</b> 에 기술을 가지고 있다.	
	나는 <b>기금 조성(fund raising)</b> 하는 기술이 있다.	
	<b>세금과 법률</b> 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다.	
기타 :		
신체 민첩성 기술	나는 <b>개인 운동</b> 을 잘 한다.	
	나는 <b>단체 운동</b> 을 잘 한다.	
	나는 <b>바느질</b> 을 잘 한다.	
	나는 <b>고장난 물건 수리</b> 를 잘 한다.	
	나는 <b>목공</b> 기능이 있다.	
기타 :		
의사 소통 기술	나는 <b>글쓰기와 편집</b> 에 소질이 있다.	
	나는 <b>강의와 연설</b> 에 능한 편이다.	
	나는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적극적으로 <b>칭취</b> 한다.	
	나는 <b>논리적 언어 구사</b> 의 능력이 있는 편이다.	
	나는 이야기할 때 <b>유머</b> 를 잘 사용하는 편이다.	
기타 :		

일반적 지도력	나는 집단이 나아갈 <b>목표 설정</b> 에 감각이 있다.	
	모임의 예산을 세우고 <b>재정 관리</b> 하는 일을 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b>동기부여</b> 하는 일을 잘 한다.	
	<b>계획안 작성</b> 및 설득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일을 평가하고 <b>우선순위</b> 를 정할 수 있다.	
기타 :		
전문적 지도력	나는 <b>코칭의 기술</b> 을 가지고 있다.	
	나는 <b>상담하는 기술</b> 을 가지고 있다.	
	나는 <b>가르치는 일</b> 에 전문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b>지도자 선발 및 훈련</b> 에 조예가 깊은 편이다.	
	<b>세미나와 워크숍</b> 을 진행할 수 있다.	
기타 :		
목회 사역 지도력	나는 <b>전도하는 법</b> 을 지도할 수 있다.	
	다양한 상황에서 <b>설교</b> 할 수 있다.	
	<b>기도하는 법</b> 을 지도할 수 있다.	
	<b>성경 공부</b> 를 인도할 수 있다.	
	<b>소그룹 지도자</b> 의 선발 및 훈련을 주도할 수 있다.	
기타 :		

습득한 기술들 중 점수가 가장 높은 항목 5개를 고르시오. (예 : 그리기 = 9점)

1. \_\_\_\_\_ = \_\_\_\_\_ 점
2. \_\_\_\_\_ = \_\_\_\_\_ 점
3. \_\_\_\_\_ = \_\_\_\_\_ 점
4. \_\_\_\_\_ = \_\_\_\_\_ 점
5. \_\_\_\_\_ = \_\_\_\_\_ 점

### 3. 영적인 은사

다음 각 문항을 읽고 전혀 맞을 않을 때는 0, 항상 맞을 때는 2점을 부여하십시오. 각 문항을 읽을 때 자신의 느낌과 확신을 잘 살피서 가능한 한 가장 정확한 답을 얻으려고 노력하십시오. 또한 나의 생애가 전체적으로 반영되도록 보다 넓은 관점에서 생각하십시오.

분야	항목	점수		
		0	1	2
가르침 ( 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 성경연구에 상당한 시간을 바친다.			
	성경연구를 통해 발견한 통찰을 다른 이들과 나눌 때 만족스럽다.			
	성경절이나 낱말의 정확한 의미를 확실하게 가르치는 재능이 있다.			
	어려운 성경진리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재주가 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사랑을 재미있고 의미있게 전달한다.			
지식 ( 점)	성경을 읽다가 자주 놀라운 깨달음을 갖고 그것을 나누기 원한다.			
	나는 성경상의 원칙들을 스스로 발견하여 자신에게 적용하곤 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골 1:10)라는 권고를 중요하게 여긴다.			
	새로운 성경 진리를 알기 위해 성경을 여러 번 통독하였다.			
	나는 성경의 난해 문제들에 대해 답변하거나 토론하기를 좋아한다.			
지혜 ( 점)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경외심을 가지고 있다.			
	종종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와서 나와 상의하곤 한다.			
	내가 제안한 그리스도인 봉사활동이 크게 성과를 거두는 예가 있다.			
	직원선출 시 내가 추천한 사람이 잘 선택된 사람임이 입증된다.			
	나는 내가 배운 바를 실생활에 적용할 줄 안다.			

목양 ( 점)	그룹에 속한 사람들을 영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데 책임을 느낀다.			
	교인들로 하여금 봉사하도록 교육하고 훈련시킬 필요성을 느낀다.			
	초신자들과 같이 신앙의 연소가 짧은 이들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			
	나는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여 교우들을 지도하고 양육한다.			
	교회의 연합을 소중히 여기며, 그 연합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다.			
조력 ( 점)	나는 남의 눈에 띄지 않게 뒤에서 묵묵히 봉사할 때 마음이 즐겁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었을 때 큰 보람을 느낀다.			
	서류 정리, 회의록 작성, 타자하는 일과 같은 교회 일을 좋아한다.			
	나는 교회에서 성전 청소나 안내와 같은 봉사의 일을 즐겨한다.			
	내가 행한 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칭찬을 받더라도 나는 기쁘다.			
자비 ( 점)	가난, 질병 등으로 고통 받는 이들을 생각하면 심히 가슴이 아프다.			
	나는 병원이나 교도소 같은 곳을 방문하기 좋아한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서든 도움 길을 찾는다.			
	어떤 사람이 받아야 할 처벌이나 형벌을 면케 해주는 재간이 있다.			
	육체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을 도와줄 때 기쁘다.			
권면 ( 점)	술, 담배, 마약 등 나쁜 습관에 빠진 이들을 바르게 선도하고 싶다.			
	나의 충고를 들은 사람들 중에 잘못을 뉘우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소외된 사람,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는다.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을 진심으로 동정하고 위로하기를 잘 한다.			
	나는 잘못된 일을 비평하기보다는 잘한 일을 칭찬하기를 잘 한다.			
대접 ( 점)	거처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항시 우리 집을 개방할 생각이 있다			
	우리 집에 오는 사람들은 '왠지 이 집이 편안하다고 말하곤 한다.			
	사람들은 나에게 '대접 잘하는 사람'이라고 칭찬하곤 한다.			
	집이 좀 누추하더라도 손님이 오는 것에 별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숙식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것을 제공해 주어야만 마음이 놓인다.			



구제 ( 점)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만나면 도와주고 싶어 한다.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낮은 생활수준을 이어 가겠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바친다.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버는 특별한 재능을 주셨다고 확신한다.			
	주님께 더 후히 바치도록 돈을 잘 관리하기 원한다.			
지도력 ( 점)	다른 사람들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동기를 유발시킨다.			
	교회의 특별 위원회 위원이나 책임자로 뽑히곤 한다.			
	지도자나 따르는 자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면 나는 지도자가 되겠다.			
	조직의 목표를 설정하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			
	나는 언제나 그룹 전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곤 한다.			
행정 ( 점)	나의 개인생활은 잘 정돈되어 있는 편이다.			
	효과적인 봉사를 위해 사람, 시간, 물건, 아이디어를 잘 조직한다.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그것을 달성하기를 좋아한다.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은사를 최대한 발휘하게 한다.			
	회의를 진행할 수 있고 의견을 조율하며 권한을 위임하기도 한다.			
믿음 ( 점)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확신한다.			
	어떤 절실한 필요가 생기면 간절하고도 끈기 있게 기도를 드린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께서 매일의 삶 속에 강하게 역사하심을 확신한다.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알기 위해 매우 구체적인 기도를 드린다.			
전도 ( 점)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도록 결심시키고 권명하는 것을 잘 한다.			
	나는 비그리스도인들과 관계를 맺고 나의 신앙을 나누기를 원한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구주 되심을 설명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 즐겁게 전도한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하면 교인이 아니라도 잘 이해한다.			

개척 ( 점)	만일 새로운 교회가 개척된다면 나도 그 일에 한 몫을 하고 싶다.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면 사람들은 나에게 권위 있는 말을 기대한다.			
	나는 선교지방에 대한 호소를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진다.			
	나와 전혀 배경이 다른 타교파 사람과도 접촉을 잘 한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얼마간 가족과 헤어져도 괜찮다.			
방언 ( 점)	나는 모국어 외에 하나 이상의 다른 언어를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그 나라의 언어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다.			
	외국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방언의 은사를 간구한 적이 있다.			
	나는 배운 적이 없는 외국어를 유창하게 말했던 경험이 있다.			
	나는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설교한 경험이 있다.			
통역 ( 점)	외국어를 모국어로, 모국어를 외국어로 통역할 수 있다.			
	설교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인이 예배에 참석하면 통역해 준다.			
	배운 적이 없는 외국어를 알아듣는 신비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설교나 성경공부를 통역해 본 경험이 있다.			
	영적 유익을 주는 신앙서적을 번역해 본 적이 있다.			
예언 ( 점)	사람들을 각성시키는 기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전파하고 싶다.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말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있다.			
	대중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명쾌하고 호소력 있게 전할 수 있다.			
	가끔 직관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강한 인상을 받는다.			
	성경 진리를 분명하고도 능력 있게 일상생활에 적용시킬 수 있다.			
능력 ( 점)	하나님께서 나를 권능과 표적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심을 믿는다.			
	나는 가끔 기적적인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			
	나는 선교지에서 일어난 초자연적인 기적을 목격한 적이 있다.			
	악의 세력과 대항하기 위해 금식하면서 능력을 간구할 때가 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실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			

분별 ( 점)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대쟁투를 의식한다.			
	어떤 가르침이 성경과 맞지 않다는 것을 금방 감지할 때가 있다.			
	신앙서적에서 시정되지 않으면 문제가 될 미묘한 오류를 찾아낸다.			
	음모나 속임수가 드러나기 전에 미리 꿰뚫어 보는 안목이 있다.			
	사람들의 저의(底意)나 동기를 미리 간파하고 분별하는 능력이 있다.			
치유 ( 점)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원리들을 알고 있다.			
	천연요법으로 기적처럼 병을 낫게 한 경험이 있다.			
	환자를 위해 하나님의 치유를 간구했을 때 응답 받은 적이 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정신질환자에게 내적 치유를 경험하게 하였다.			
	환자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자주 받는다.			

영적인 은사들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은사 5개를 고르시오. (예 : 권면 = 9점)

- (1) \_\_\_\_\_ ( 점)
- (2) \_\_\_\_\_ ( 점)
- (3) \_\_\_\_\_ ( 점)
- (4) \_\_\_\_\_ ( 점)
- (5) \_\_\_\_\_ ( 점)

### 타고난 재능별로 추천하는 활동 분야

분야	항목
창의적 재능	창의적 아이디어를 요하는 전략 위원회 위원, 드라마 사역팀, 음악 창작 교실, 청소년 사역, 어린이 교사, 사역팀 리더를 위한 코치
인식적 능력	사역팀 리더, 선교 전략 위원회 위원, 모금활동 담당자, 교인 및 구도자 명단 등 데이터 관리, 사역 배치 위원, 예언 연구 사역팀,
육체적 민첩성	각종 스포츠 사역팀(등산, 볼링, 테니스, 골프, 조깅, 축구, 배구, 베드민턴, 게이트볼, 마라톤 등), 수화 교실, 비즈 공예 사역팀
관계적 능력	방문 사역팀, 대외 홍보 및 섭외 담당, 사교 담당, 대변인, 모금 활동 담당자, 교회 내 이벤트 기획자, 손님 환영 사역팀, 경로 사역팀 리더

### 습득한 기술별로 추천하는 활동 분야

분야	항목
창의적 기술	교회 인테리어 사역팀, 디자인 교실(미술), 나는 미술, 교회 홍보 사역팀, 문서 사역팀, 드라마 사역팀(시나리오, 연출, 연기), 음악 사역팀(기악, 성악)
전문적 기술	안식일학교 커리큘럼 개발팀, 교회 재무, 선교 전략 위원회, 기금 조성(fund raising) 담당자, 세금 및 법률 고문, 가정 경제 세미나 강사, 각종 전문 분야 지식을 기초로 한 전문 사역팀 리더
신체 민첩성 기술	각종 스포츠 사역팀(등산, 볼링, 테니스, 골프, 조깅, 축구, 배구, 베드민턴, 게이트볼, 마라톤 등), 수화 교실, 비즈 공예 사역팀, 수공예 사역팀 리더
의사소통 기술	뉴스레터 편집자, 각종 세미나 강사, 편지 사역팀, 상담자, 청소년 사역, 레크리에이션 담당, 교회 홍보 위원, 대외 협력 담당
일반적 지도력	각종 사역팀 리더, 재정 분야 감사, 선교 전략 위원회, 소그룹 리더를 위한 코치, 장로, 청소년 사역, 지역사회 봉사 사역, 안식일학교 교장, 선교회 회장
전문적 지도력	소그룹 리더를 위한 코치, 상담자, 청소년 사역, 안식일학교 교사, 각 사역팀 리더, 각종 세미나 강사, 이벤트 기획 및 진행자
목회 사역 지도력	사역팀 리더, 선교 분과 위원, 선교회 회장, 설교자, 교회 개척 위원, 기도후원 사역, 구도자 성경 교수, 새 신자 양육 그룹 리더, 소그룹 리더 훈련 코치

## 영적 은사별로 추천하는 활동 분야

은사	봉사 분야
가르침의 은사	안식일학교 교사, 개척대 지도자, 청년활동 지도자, 어린이 성경학교 교사, 안교 분교 교사, 성경연구반 교사, 각종 교육관련 사역, 소그룹 리더, 각종 세미나 강사, 컴퓨터 및 전자 장비 활용 교육
지식의 은사	성경교수, 성경연구반 조력, 주제별 성경연구, 평신도 전도자, 장로
지혜의 은사	교회직원회 의장, 각종 위원회 위원, 장로, 상담자, 학무위원
목양의 은사	교회성장을 위한 방문, 소외된 자들을 위한 선교봉사, 성경연구반 지도자, 병원방문 사역, 상담 사역, 사교위원, 어린이 선교 담당자, 소그룹 리더, 호스피스 사역, 유가족 돌봄 사역
조력의 은사	재정위원, 학생부 보조위원, 투자헌금 담당자, 지역사회봉사 위원, 이웃사랑 실천운동 담당자, 극빈자를 위한 재정위원, 학생 선교위원, 집사, 음악 위원(찬양대), 전화선교, 교회장식 위원, 선교도서 및 테이프 봉사, 시청각 자료 사역, 건물관리 위원, 인쇄물 및 홍보 담당, 차량봉사, 무료급식 봉사, 주차요원
자비의 은사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지역사회 봉사 사역(도르가), 극빈자들을 위한 재정 위원, 학생부 보조위원, 상담 사역, 무료급식 봉사
권면의 은사	병원방문 사역, 교회성장을 위한 방문, 교도소 전도, 전화 상담, 편지 사역 팀, 투자헌금 담당자, 특별 분야의 고문(결혼, 청소년 등), 이웃사랑 실천운동 담당자, 청소년 선교 위원
대접의 은사	접대위원회 담당자, 사교위원, 안내, 집사, 독신자를 위한 사역, 새 신자 환영 사역팀, 소그룹 모임을 위한 호스트, 요리 교실
구제의 은사	도르가 회장, 소년소녀가장 돕기, 무료급식 봉사, 극빈자 돌봄 사역, 불우 이웃돕기 바자회 담당
지도력의 은사	안식일학교 교장, 여러 이사회와 위원회의 의장, 평신도 전도자, 장로, 수석 집사, 재무, 청년선교회 회장, 사역팀 리더, 소그룹 리더 훈련을 위한 코치
행정의 은사	교회서기, 재무, 선거위원, 전화선교 사역, 교회 기록 담당, 안식일학교 교장, 인쇄물 및 홍보 담당자, 편지 사역팀, 사역 배치 위원회 위원
믿음의 은사	건축위원장, 특별사업 고안자, 선거 위원, 학무 위원, 전도 위원, 기도후원 사역팀, 재정후원 사역팀

전도의 은사	개인전도 상담자, 성경교수, 성경교수반 인도자, 새로운 지역 교회개척, 교도소 사역, 안교 분교(장년) 담당자, 방문 및 구도자 뒷수습 위원, 가가호호 전도 사역
개척의 은사	새로운 지역 교회개척 위원, 개인전도(남성, 여성 선교회), 학생사역 담당, 방문위원, 피난민 구호, 도시선교 문화에 맞는 적절한 전도법, 교회성장을 위한 방문 사역, 새로운 사업 계획
방언의 은사	해외선교 사역, 다문화 가정 돌봄 사역, 외국인 노동자 돌봄 사역, 외국어 교과반 리더
통역의 은사	통역 및 번역팀, 해외선교 사역, 다문화 가정 돌봄 사역, 외국인 근로자 돌봄 사역
예언의 은사	평신도 전도인, 장로, 교도소 선교, 성경연구반 리더, 예언 연구 사역팀
능력의 은사	해외 선교단, 난민선교회, 개척 전도단, 의료 선교
분별의 은사	장로, 선거위원, 목회자를 위한 평신도 자문위원, 학무위원, 각 위원회 위원, 사역팀 리더
치유의 은사	병원방문 사역, 호스피스 사역, 독거노인 돌봄 사역, 유가족 돌봄 사역, 의료 봉사팀, 건강교육 사역팀

## 개인 신상 카드

### 개인 신상

이름 : \_\_\_\_\_ (남, 여) 생년월일 : \_\_\_\_\_

주소 : \_\_\_\_\_

전화 : \_\_\_\_\_ 휴대폰 : \_\_\_\_\_

집/직장 : \_\_\_\_\_

### 교회 출석

교회 출석일자 : \_\_\_\_\_ 침례 받은 교인입니까?  예  아니오

영적 성숙도 :  구도자  초신자  안정/ 성숙  지도자/ 인도자

교회 사역 참여

과거/ 현재	기간	사역	소속

### 열정/ 은사/ 스타일

열정을 느끼는 분야? 1. \_\_\_\_\_ 2. \_\_\_\_\_ 3. \_\_\_\_\_

나의 은사는?

1. 타고난 재능 : \_\_\_\_\_

2. 습득한 기술 : \_\_\_\_\_

3. 영적인 은사 : \_\_\_\_\_

일하는 스타일은?  일 중심+체계적  일 중심+비체계적

사람 중심+체계적  사람 중심+비체계적

현재 가용한 시간은?  주 1-2시간  주 3-4시간  4시간 이상  잘 모름

좀 더 알고 싶은 사역은? \_\_\_\_\_

## 상담자 기록란

적합한 사역	해당 부서
1.	
2.	
상담자 이름 :	상담일자 :
상담자 의견 :	



## 부록 2

### 소그룹 활동 보고서

■ 소그룹명 :					
■ 리더 :			■ 예비 리더 :		
■ 일시 :			■ 장소 :		
■ 참여자 성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 방문자 성명					
1		연락처 :			
2		연락처 :			
3		연락처 :			
■ 활동내용					
■ 특기사항					

## 소그룹리더 바로 세우기

발행일 2015년 10월 15일

발행처 한국연합회 선교전략연구소

발행인 김대성 | 편집인 한송식 | 개발자 윤재성 | 디자인 이혜연, 배혜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홈페이지 <http://mtri.or.kr> | 전자우편 [hanss417@hanmail.net](mailto:hanss417@hanmail.net)

대표전화 (02)3299-5264

정가 4,000원

구입문의: 한국연합회 선교전략연구소

Copyright © 2015 한국연합회 선교전략연구소

# 재림성도 양육단계 및 교재

## 1. 신자되기 (Making Adventist)



## 2. 제자되기 (Training as Disciple)



## 3. 일꾼되기 (Serving as Servant)



## 운영 지침서



소그룹 리더 교육교재

## 소그룹 리더 바로 세우기



소그룹 사역의 성패는 리더 훈련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공적인 소그룹 사역을 원한다면 교회를 반드시 소그룹 리더를 훈련시켜야 합니다. 본 교재는 지역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소그룹 리더 훈련을 시킬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본 과정은 12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주 모일 경우 3개월 코스로 마지막 13주 차에는 수료식을 갖도록 편성되었습니다.

이 교재를 통하여 각 지역 교회에서 잘 갖추어지고, 준비된 소그룹 리더들이 잘 길러지고 소그룹 사역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 1과 : 교회와 사역
- 2과 : 사역과 소그룹
- 3과 : 소그룹과 리더
- 4과 : 소그룹 형성
- 5과 : 재림교회와 소그룹
- 6과 : 교사로서의 리더
- 7과 : 목양자로서의 리더
- 8과 : 사역자로서의 리더
- 9과 : 소그룹 운영의 실제 1
- 10과 : 소그룹 운영의 실제 2
- 11과 : 소그룹과 양육 시스템
- 12과 : 사역 확장
- 부록 1 : 당신의 은사를 발견하라!
- 부록 2 : 소그룹 활동 보고서